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미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충북지역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실태 분석 연구

201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전 지 선

충북지역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실태 분석 연구

김 미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전 지 선

인 준 서

전지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엘 시스템아’는 사회적 불균형 속에 마약과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음악교육을 통하여 가난을 극복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그 안에서 성장하고 꿈을 이루어가기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사회적 행동조직이다. 엘 시스템아는 사회적 변화, 합주 교육, 높은 교육 횟수, 접근성, 연결성 등의 철학적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들은 가난과 범죄로부터 보호되고 있으며, 개인의 음악적, 전인적 성장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루어 국가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성공적인 대중교육으로 자리 잡은 엘 시스템아의 교육사례를 모델로 하여 여러 나라에서는 각 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성 함양을 위한 예술교육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교육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대표적으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의 ‘학생오케스트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꿈의 오케스트라’, 서울시와 서울시향 지원의 ‘우리동네 예술학교’ 등이 있다.

이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술교육사업으로 시작된 학생오케스트라의 교육적 효과를 알아보고 충북지역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에 맞는 활성화방안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하여 오케스트라의 교육적 효과와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의 모델인 ‘엘 시스템아’에 대하여 알아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형 엘 시스템아’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실태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의 흐름에 대하여 알아본 후 지역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기 위해 충북지역 학생오케스트라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학생과 담당

교사의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다.

연구 대상은 2011~2013년까지 선정된 총 400여개교 학생오케스트라 중 충북지역 초·중학교 14개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생과 담당교사의 설문지를 통한 조사연구를 하였다.

조사 결과, 학생의 경우 악기를 학교에서 빌려주거나 무료로 제공받아 사용함으로써 부담없이 악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으며, 과반수가 넘는 학생들이 취미활동을 위해 오케스트라에 참여하였다. 오케스트라를 통해 느낀 교육적 효과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배운 점으로는 음악적 지식, 협동심, 무대를 통한 자신감을 배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사의 설문을 통해서 운영실태와 합주실태에 대하여 알 수 있었는데, 담당교사의 경우 주로 운영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관련 연수프로그램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의견이 과반수가 넘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담당교사 개인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교육적 효과에서는 학생오케스트라가 진로탐색의 기능, 사교육 감소, 사회성과 협동심 발달, 정서적 안정 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전반적인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은 사업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설문을 통한 교사와 학생의 의견을 참고한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속적인 오케스트라 활동을 위한 예산확보, 단위학교보다는 지역연합의 오케스트라 운영, 오케스트라 강사의 체계적인 지도, 지역의 특성을 살린 오케스트라의 형태의 운영을 제시하였다.

학생오케스트라를 통해 문화소외지역의 학생들에게 음악을 통해 꿈과 희망이 생겨나고, 그 안에서 개인의 음악적인 성장과 전인적 성장 뿐만 아니라 가정, 국가의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3
3. 연구의 제한점	3
4. 선행연구	4
II. 이론적 배경	8
1. 오케스트라 교육의 의의	8
2. 엘 시스템아와 한국형 엘 시스템아	15
3. 충북지역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현황	24
III. 연구방법	31
1. 연구 대상 및 방법	31
2.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32
IV. 연구 분석 및 결과	36
1. 학생 설문 결과	36
2. 담당교사 설문 결과	53
V. 결론 및 제언	80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II-1> 엘 시스템아의 5대 원칙	18
<표 II-2> 충북지역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 현황	25
<표 III-1> 연구 절차	32
<표 III-2> 학생용 설문지 세부 내용	33
<표 III-3> 담당교사용 설문지 세부 내용	34
<표 IV-1> 성별에 따른 학교급과 오케스트라 구성 학년	36
<표 IV-2> 일반 학생오케스트라 연주 악기	37
<표 IV-3> 국악 학생오케스트라 연주 악기	38
<표 IV-4> 연주 악기에 대한 만족도	38
<표 IV-5> 악기를 배운 기간	39
<표 IV-6> 악기의 습득 경로	40
<표 IV-7> 오케스트라 활동 외 개인 실기 지도 여부	40
<표 IV-8> 오케스트라 활동 외 실기 지도를 받고 있는 장소	41
<표 IV-9> 참여 동기	42
<표 IV-10> 연습시간 적정도	43
<표 IV-11> 음악과목의 이해	44
<표 IV-12> 자신감 형성	45
<표 IV-13> 화음 형성의 즐거움	45
<표 IV-14> 학업 스트레스 감소	46
<표 IV-15> 음악에 대한 애호심	47
<표 IV-16> 단원으로써 배운 점	47
<표 IV-17> 단원으로써 좋은 점	48
<표 IV-18> 단원으로써 어려운 점	50
<표 IV-19> 단원으로써 바라는 점	51
<표 IV-20> 창단연도	55
<표 IV-21> 운영 인력 구성 및 인원	58
<표 IV-22> 학생오케스트라 유형	59
<표 IV-23> 총 단원 수	59

<표 IV-24> 합주 연습 장소	61
<표 IV-25> 파트별 연습 장소	62
<표 IV-26>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을 통해 구비한 시설	63
<표 IV-27> 오케스트라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자재	63
<표 IV-28> 일 년 예산	64
<표 IV-29>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을 통해 받은 교사 연수 프로그램 ..	65
<표 IV-30> 주 당 파트별 연습 횟수와 연습시간	66
<표 IV-31> 주 당 합주 횟수	67
<표 IV-32> 지도곡	68
<표 IV-33> 연주 악보의 출처	69
<표 IV-34> 지난 한 해 동안 연주 횟수와 연주회 당 연주되는 곡의 수 ...	70
<표 IV-35> 담당교사의 어려운 점	71
<표 IV-36> 담당교사가 생각하는 개선 점	73
<표 IV-37> 담당교사가 생각하는 자생적인 운영 방안	74

그림 목차

<그림 II-1>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모형	22
-------------------------------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적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새 정부의 국정지표인 문화융성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는 학교와 사회로 대상을 구분하여 문화예술을 강화시키는 교육정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술교육의 중요성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대중적인 예술교육의 성공적 사례인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는 예술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엘 시스테마’는 1975년 베네수엘라 경제학자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가 조직했던 ‘음악을 위한 사회행동’을 전신으로 하는 오케스트라 시스템 육성재단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범죄에 노출되어 있던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주고 오케스트라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그 속에서 인성과 사회성을 기르며 더 나아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과 희망을 갖게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에 이르기까지 국가적인 정책 차원으로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에 영향을 받아 ‘엘 시스테마’를 모델로 한 오케스트라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의 ‘학생오케스트라’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꿈의 오케스트라’가 추진되었다. 특히, 교과부의 ‘학생 오케스트라’는 2011년 창단한 이래 2011년 65개교, 2012년 상반기 85개교, 하반기 150개교, 2013년 100개교를 추가 선정해 총 400개교를 운영 중이다. 2014년에는 650개교를 선정하여 2011년 창단하여 3년간 지원 받은 학교를 제외하고, 총 985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학생오케스트라는 학교를 거점으로 하여 문화예술 소외지역이나 취약지역, 학교폭력이 심각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충북 내 학생오케스트라는 2011년~2013년까지 총 25개교, 2014년 14개교가 선정되어 주로 클래식 악기를 접하기 힘든 문화소외지역, 예술 환경이 열악한 지역 등에 운영되고 있다.

오케스트라의 교육적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 엘시스테마의 성공적인 교육적 사례는 여러 다른 나라의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이를 롤 모델로 한 오케스트라 교육을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오케스트라 교육의 효과성을 증명하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오케스트라를 통하여 학생들은 자기표현력과 창의성을 기르고, 공연을 준비하면서 꾸준하고 반복된 연습을 통해 인내심에 대한 가치를 알게 하며, 오케스트라 단원활동을 통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팀워크를 배우고, 공연을 통한 무대경험으로 두려움과 맞서고 그것을 극복해 내는 위기대처 능력이 향상된다. 또한 연습 후 공연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게 되어 긍정적인 감정적 유익을 얻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이점을 가진 오케스트라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의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수치를 봤을 때는 계속해서 학생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양적으로 늘어났지만, 이를 운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학생오케스트라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과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한 내실 있고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의 예술교육사업으로 시작된 학생오케스트라의 교육적 효과를 알아보고, 충북 지역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학생오케스트라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연구 범위는 2011년~2013년 까지 선정된 교육부 지원 충북지역 학생오케스트라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케스트라 교육적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문헌연구를 통해 기악음악의 중요성과 오케스트라의 교육적 효과에 대하여 알아본다.

둘째,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의 모델이 된 ‘엘 시스템아’를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형 엘 시스템아’에 대하여 알아본다.

셋째,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실태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학생오케스트라 연구의 흐름에 대하여 알아본다.

넷째, 학생오케스트라의 지역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충북지역 학생오케스트라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학생, 지도교사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다.

다섯째, 충북지역에 맞는 학생오케스트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충북지역 학생오케스트라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였으며 2014년 운영실태 현황에서 학교 수는 제시되어 있었으

나 구체적인 학교명을 찾을 수 없어 이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둘째, 이 연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충북지역 학생오케스트라 총 25개교 중 14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든 충북지역의 학생오케스트라의 운영 실태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셋째, 연구대상 중 설문지에 응답한 대상이 전 학년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학생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응답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4. 선행연구

남혜선(2009)¹⁾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중 서울·경기지역에서 활동 중인 단체를 대상으로 단원의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와 지휘자의 합주지도에 관한 인식 및 문제점을 설문조사하고, 합주 활동,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사결과 청소년 오케스트라 활동은 교육적 효과가 뛰어나고 단원으로 활동하는 단원의 만족도는 높다고 제시하였다. 단원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단원 교육프로그램의 필요, 지휘자 외에 다양한 행정 인력 구성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발전과 흥미, 경험 등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지휘자와 행정가들의 목적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후속연구 제안에 지역마다 오케스트라의 자세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서 각

1) 남혜선,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합주활동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지역 상황에 따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여 이 연구의 연구주제의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김지선(2012)²⁾은 전국 65개교(2011년 기준) 학생오케스트라의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학생오케스트라 조직 및 운영(예시)안’에 따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교가 목적에 부합되게 진행되고 있었으나 교과부의 선정된 학교에게 보내는 공문 시기를 앞당겨 교사들의 행정적 업무에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하고, 다양한 방법의 교사연수, 교육지원청의 임시강사확보, 대학생 멘토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학생오케스트라 조직 및 운영(예시)안’을 기준으로 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나 설문지가 너무 단순하여 전반적이고 실질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정수현(2012)³⁾은 학생과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2011년에 선발된 서울·경기 지역의 학생오케스트라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인식조사와 교육적 효과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며, 발전방안으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청소년에게 맞는 악곡 개발, 지도교사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연수 기회 제공, 진급 후에도 연계하여 오케스트라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구성선(2012)⁴⁾은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오케스트라 업무를 맡고 있거나 앞으로 맡게 될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매뉴얼의 항목과 내용은 현장에서 서울시 초등학교 오케스트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요구조사

2) 김지선, “교과부 지원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3) 정수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서울·경기지역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실태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4) 구성선,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위한 매뉴얼 개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를 실시하여 구성하였으며, 매뉴얼의 내용은 크게 엘 시스템의 철학적 배경과 교사의 음악적, 운영적 역량, 참고사이트로 구성하였다. 제언으로는 교사 교육제도와 정책적 개선, 합리적인 비용으로 오케스트라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확대, 오케스트라 관련 직무 연수 필요, 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교사의 노력, 오케스트라 교사 간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지도교사가 필요로 하는 요구가 무엇인지 음악적, 운영적 측면에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었으며, 설문지를 구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최정민(2012)⁵⁾의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운영 실태”에서는 전국 65개(2011년 기준) 초·중·고 학생오케스트라 중 36개 초등학교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을 통하여 조사연구 하였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개선방안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지원의 확보, 사업단의 다양하고 적용 가능한 편곡 악보 제공, 담당교사의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오케스트라 운영 인력 확충과 인센티브 제도화, 오케스트라 지원 협의체의 설립 필요를 제안하였다. 제언에서는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조사를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의 의견 또한 조사해 더욱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오케스트라 지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소형(2014)⁶⁾은 해당 단체에서 지도교사가 기악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어려움, 보람, 바람으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분석·기술하고 해석하였다. 이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로 면담과 관찰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 배경을 제시하여 연구 도구로서 타당하고 신뢰성이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연구자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5) 최정민,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운영 실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6) 김소형, “사회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오케스트라 지도교사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 서울시립교향악단 운영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넘지 못한다”는 명제를 바탕으로 오케스트라 지도교사의 교육행위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질적 사례 연구 특성상 주관적인 면이 많아 일반화를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엘 시스템마를 모델로 삼아 운영되고 있는 오케스트라 지도강사의 심층적인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적인 면에서 어떻게 운영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해 볼 수 있었다.

신소영(2015)⁷⁾은 강원도 내 2011년 시작된 학생오케스트라 중 2012년에 선정되어 운영된 지 3년차 된 두 개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담당교사와 단원에게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문화소외지역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지역별 특성과 학교별 차이점을 파악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조사 결과가 지역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결과여서 지역의 특수성을 알 수 없었다. 또한 표본의 수가 너무 적고, 비교 조사한 두 개의 학교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아쉬웠다.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실태를 지도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된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전국이나 서울·경기지역을 위주로 진행된 것이 많았다. 하지만 지역마다 학생오케스트라에 대한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학생오케스트라의 활성화 방안을 모든 지역 학생오케스트라에 적용하여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학생오케스트라’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충북 지역 중심으로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역에 적합한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7) 신소영, “강원도 내 교육부 지정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실태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

Ⅱ. 이론적 배경

1. 오케스트라 교육의 의의

1) 기악음악의 중요성

음악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활동으로 인류의 시작과 함께 지금까지 존재해 오고 있으며, 그 가치는 인간이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데 있다.⁸⁾ 악기를 사용하여 연주하는 기악음악은 다양한 소리에 대한 감각을 키워주고, 학생들의 음악적인 식견을 넓혀주며 변성기나 성대가 미숙한 어린이들이 음악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악음악을 통해 음감과 음색을 계발할 기회를 얻게 되며, 다양한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이해, 협동심, 심리적 안정 및 정서적 발달, 다양한 자기표현 창구, 창의력 신장, 다른 나라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⁹⁾

기악음악의 교육적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음악의 아름다움과 예술의 의미를 체험하는 데 도움이 된다.¹⁰⁾ 악기를 통해 음악을 표현함으로써 악기 자체의 소리와 음색과 음역을 느끼며 자신의 음악적 표현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창과는 또 다른 음악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점은 내성적인 성격의 학생들에게 악기를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심어주고, 이

8) 김현미, “‘엘 시스템아’ 교찰을 통한 사회 취약층 청소년 음악 교육의 방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3, p. 9

9) 조효임, 장기범 「초등기악교육론」, 서울 : 예일출판사, 2005, pp. 12~14

10) 남혜선,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합주활동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p. 6

를 통해 음악적 애호심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¹¹⁾ 또한 기악곡은 전 시대에 걸쳐 다양하고 많은 문헌이 있으므로 다양한 악곡과 형식과 기법, 다양한 지역과 시대의 곡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¹²⁾ 또한 악기는 그 나라의 문화와 물질문명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악기를 연주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되어 다문화적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¹³⁾

둘째, 기악교육을 통해 음악적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존·아킨스 박사가 “음악을 듣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연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것처럼 직접적인 악기연주는 음악적 즐거움, 악보 읽기 및 화음 만들기, 그 외의 다른 음악적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또한 Mursell(1956)은 기악교육이 청각적인 특성을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 리듬을 정확히 만든다고 주장하였고, 김순제, 박준교(1971)도 리듬에 대한 예민한 감각은 리듬지도가 기본이 되는 기악교육에서 길러질 수 있다고 하였다.¹⁵⁾ 이외에도 기악교육을 통한 셈여림의 극적 표현, 음악적 빠르기의 기악적 표현, 악기와 악기의 어우러지는 조화와 다양한 악기들이 내는 소리에 대한 음색의 개념을 익힐 수 있어 다양한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이해의 창구가 될 수 있다.¹⁶⁾

셋째, 변성기의 청소년과 성대가 미숙한 아동이 지속적으로 음악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변성기의 청소년들은 가창을 할 때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거부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미성숙한 아동들은 자신의 목소리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기악음악은 또 다른 방

11) 이용일, 1997, 재인용

12)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출판사, 1990, 재인용

13) 조효임, 장기범, 전계서, pp. 12~14

14) 최정민,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초등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실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p. 7

15) 남혜선, 전계서, p. 7, 재인용

16) 조효임, 장기범, 상계서

법으로 학생들의 음악적 욕구를 성장·지속시키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창의적인 사고, 음악에 대한 애호심, 자아실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한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의 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소리를 만들고 다듬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해결방법을 생각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학생들은 음악을 배울수록 그 음악 속에 ‘열린 공간’이 있음을 알게 되어 아름다운 세계를 자유롭게도 창의적으로 탐구해 나갈 수 있다.¹⁷⁾ 또한 아동들은 악기를 배우고 나면 그 느낌을 악기로 나타내고 싶어하며¹⁸⁾ 악기를 통해 ‘소리를 통한 의사표출’을 함으로써 자신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¹⁹⁾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음악활동의 개인적 가치를 인식하게 되고, 그것은 곧 음악에 대한 애호심과 긍정적인 태도로 이어지게 된다.²⁰⁾

이와 더불어 Mursell(1956)은 기악음악교육에서 단지 학생들에게 악기의 기술적인 테크닉을 가르치고 좋은 연주를 길러내기 위한 것보다는 앞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다.²¹⁾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기악음악은 음악의 심미적 체험과 음악적 개념의 형성을 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한 음악에 대한 애호심, 창의적인 사고와 자신을 표현하고 느낄 수 있는 자아실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악음악 교육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다.

2) 오케스트라의 교육적 효과

오케스트라는 기악합주 중에서 가장 큰 합주 단위로서 다종의 악기 편성으

17) 석문주 외 3명,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 교육과학사, 2005, p. 33

18) 석문주 외 3명, 상계서, p. 34

19) 조효임, 장기범, 상계서

20) 남혜선, 전계서, p. 7

21) 최정민, 전계서, p. 8

로 악기훈련을 쌓은 100명 안팎의 음악을 위해 모인 개개인이 바탕이 되는 하나의 조직이고 사회이다.²²⁾ 오케스트라 전체의 조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소통은 필수적이며, 최상의 연주를 하기 위해서 서로 이해하고, 예측하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본자세이다.²³⁾

학교 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함께 연주하는 법을 익히는 것은 결코 단 기일 내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며 계속된 훈련을 통해 체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창시절 오케스트라 활동은 오케스트라 구성원으로서 특별한 음악적 체험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⁴⁾ 청소년기의 오케스트라 활동은 전문 연주자처럼 연주경험을 통해 세련되고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관객들에게 음악적 아름다움을 전달한다는 목적보다는 스스로 연주 활동과 연습에 참여하여 그 속에서 많은 음악적 성장과 교육적인 경험을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²⁵⁾

오케스트라의 교육적 효과를 음악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음악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다양한 악기를 접할 수 있어 다양한 음색의 악기를 들으며 연주하는 경험을 통해 견고한 화성의 아름다움과 음색의 입체미를 느끼게 되어 음악의 심미성을 경험할 수 있다.²⁶⁾ 기악곡에는 다양한 수준의 악곡과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악곡들이 많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가르칠 만한 음악적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²⁷⁾ 이러한 악곡들을 연주하며 학생들은 작곡가의 사상과 음악적 표현이

22)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 '오케스트라', 2015년 4월 2일

23) 서지혜, 이진숙, 「한국형 엘 시스템」 -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일궈가기, 서울:마티, 2014, p. 155

24) 이신희, "초등학교 관현악 합주 악곡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 초등학교 관현악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p. 8

25) 남혜선, 전게서, p. 8

26) 남미영, "심미적 체험에 중점을 둔 리코더 앙상블 연구의 선정 및 지도과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 재인용

27) 이홍수, 전게서, 재인용

담긴 예술작품의 의미를 느끼며 자신의 음악적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다.²⁸⁾ 또한 악기연주라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 단순히 연주기술의 향상 뿐만 아니라 음악의 즐거움, 악보 읽기 및 화음 만들기, 청음능력 향상 그 외 다른 음악적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음악적 개념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파악하게 되고, 소리와 악보적 기보법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 빨라지게 된다.²⁹⁾

사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청소년기는 자아형성과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강한데 이를 충족시키는 적합한 대안이 오케스트라이다. 연주 준비과정과 연주회를 통해 학생들은 음악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고, 타인에게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³⁰⁾ 이러한 시기에 오케스트라 교육은 협력학습이라는 특성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 상호작용,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 레퍼토리를 완성해 나가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하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협력하는 공동체 능력, 합의 능력을 학습하고 나아가 연주회를 통해 성과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경험하게 된다.³¹⁾ 또한 개별 연습-그룹 연습-전체 합주-연주로 이어지는 학습과정은 삶의 총체적 국면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호흡과 감정을 맞추는 연습을 함으로써 공동체를 경험한다. 이로써 조화로운 인격에 도움을 주게 되며,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 이 외에도 연주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과정에서 인내심을 배우고, 연습이 연주로 이어질 때 단원들끼리의 우정이 돈독해진다. 또한 오케스트라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의 관심으로 자신감을 얻게 되며 이는 사회적 연결망에 소속되어 있다는 만족감을

28) 고원희, “관현악 합주 활동이 감상능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p. 22

29) 박지영, “합주활동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p. 14

30) 남혜선, 2009, p. 10

31) 서지혜, 이진숙, 전계서, p. 157

갖게 한다.³²⁾

미국 음악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설문에 의하면, 단체 기악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삶의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행동이 바르며 청소년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적다고 한다.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음악을 위한 각 파트의 역할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 영향을 받아 자기감정을 통제하는 자기규제 기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³³⁾

예술에는 하나의 답이 없으며, 다수의 관점과 생각들이 존재한다. 기악음악이나 오케스트라에서는 음을 연주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스타일이 있음을 알게 되면 학생들은 다양한 해결책, 추론감각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³⁴⁾ 또한 오케스트라 활동은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한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악기를 통해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직접적인 활동이므로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음악적 재능을 키우며 자신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³⁵⁾ 예술의 목적은 단순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인데 학생들은 음악을 통해 악기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며 삶에 대한 도전과 맞서는 훈련을 함으로써 성공하는데 필요한 자신감을 얻게 된다.³⁶⁾ 이것은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애호심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속적인 음악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건전한 취미를 갖게 한다. 이로써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노르웨이 학자 윗 웰(Whitewell)은 음악이 자

32) 서지혜, 이진숙, 상계서, pp. 153~154

33) 장기범, “오케스트라 활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양산 문화원 주최 대한민국 청소년 오케스트라 축전 전국 청소년 음악 문화 학술대회, 2005, pp. 5~13, 재인용

34) National education longitude study in USA, 1998& Cassandra Mather, 2009, 재인용

35) 박영미, “청소년들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긍정적 영향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p. 5

36) Cassandra Mather, 상계서, 재인용

기인지를 향상시키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음악활동의 참여와 학교 음악활동에서의 성과는 학교학습에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³⁷⁾ 특히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동시에 위기를 느끼는 시기이다. 따라서 외로움을 겪거나 방황을 할 때, 음악은 하나의 소통의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어 자아정체감을 지키고 자존감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악기 연주는 가창과는 달리 특별한 교육의 경험 없이는 능숙하게 연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은 가창보다 높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³⁸⁾

오케스트라 활동은 자신의 역할을 지키며 다른 악기의 소리를 듣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자아를 확립시키고, 서로 협동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여 정서적으로 미숙한 시기의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³⁹⁾ 이 외에도 공연을 위한 꾸준한 연습으로 인해 인내심의 가치를 배우고, 지속적인 공연을 통해 무대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어 유연한 상황 능력을 키울 수 있다.⁴⁰⁾

엘 시스테마의 아브레우 박사는 오케스트라 교육의 영향에 대한 믿음을 테드 상 수상 소감을 통해 간결하게 밝혔는데, 그는 연설에서 엘 시스테마의 영향을 개인, 가족, 공동체 측면에서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⁴¹⁾ 개인적으로는 지적, 감정적 측면을 개발하게 하여 리더십, 교육과 훈련에 대한 원칙, 책임감, 타인에 대한 헌신과 배려, 그리고 더 위대한 공동의 목표를 노력을 통해 성취하고자 함으로써 개인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고귀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확립시키며 책임감, 인내심, 시간관념을 심어주어 학교에서도 더 나은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가정에

37) 서지혜, 이진숙, 전계서, p. 153

38) 현경실, “초등학교 기악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초등학교 연구논총 Vol.10, 1997, 재인용

39) 김혜미,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고등학교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실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p. 10

40) Cassandra Mather, 전계서, 재인용

41) 서지혜, 이진숙, 전계서, p. 145

서는 자신이 가족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을 스스로 찾게 되며 이러한 움직임과 바람이 활기차고 건설적인 사회의 동력이 된다. 오케스트라는 문화의 창의적 공간이자 교류와 새로운 의미들의 원천이며, 음악이 지닌 자연스러움은 사치품이 아닌 사회적 유산으로 존재하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악기를 배우고 소속을 갖고 오케스트라 활동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삶을 타락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좋은 처방이라고 하였다.⁴²⁾

이처럼 음악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은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음악적 성장 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 심리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2. 엘 시스템과 한국형 엘 시스템

(1) 엘 시스템

1) 발달 배경

엘 시스템은 국가 지원을 받는 베네수엘라의 음악 교육 재단으로 정식 명칭은 베네수엘라 국립 청년 및 유소년 오케스트라 시스템 육성재단(Fundación del Estado para el Sistema Nacional de las Orquestas Juveniles e Infantiles de Venezuela, 이하 FESNOJIV)이며 엘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⁴³⁾

이 시스템의 창시자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Jose Antonio Abreu)는 당시

42) 서지혜, 이진숙, 전개서, pp. 145~146

43) 위키백과, '엘 시스템' 검색, 2015년 4월 1일

대부분의 국민이 사회적 불균형 속에 놓여 있었고, 이로 인해 그 가정의 청소년들은 폭력과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 국가적으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에 아브레우 박사는 불우한 처지에서 방황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오케스트라를 통해 가난을 극복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꿈을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카라카스 차고에서 11명의 빈민가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음악을 위한 사회행동 조직, 즉 ‘엘 시스템아’의 시작이었다. 아브레우 박사는 엘 시스템아의 목적이 전문적인 음악인 양성보다는 음악을 통해 아이들을 가난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와 기업,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그 결과 설립 3년만에 정부산하기관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국가 예산이 책정되어 기업후원금을 포함한 운영예산은 2009년 기준 약 2900만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⁴⁴⁾

2) 운영구조⁴⁵⁾

엘 시스템아는 지역 커뮤니티 단위의 뉴클레오(Nucleo)라는 단위사업체 중심으로 운영되며, 그러한 뉴클레오를 총괄하는 주체가 바로 페스노히브이다. 페스노히브의 목표는 단위 사업체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오케스트라 교육모델의 개발과 확산, 세부 단위사업 기관들에 대한 지원·관리, 역량 개발, 교수법 개발과 교육강사 교육, 재무관리 시스템 구축, 커리큘럼, 교안 등 교육에 필요한 기본모듈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또한 엘 시스템아의 핵심기관으로서 재원조달과 교육 및 철학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페스노히브의 구조는 운영 이사회, 자문 이사회, 내부감사로 크게

44) 구성선,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위한 매뉴얼 개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p. 33

45) 꿈의 오케스트라, <http://www.orchestrakids.or.kr>, 인사이더 리포트, 2011, 2015년 4월 1일

나누어져 운영된다.

엘 시스템아는 페스노히브를 주축으로 하부에 2개의 중심 교육조직(Caracas)과 161개 지역 자율재단인 뉴클레오, 7개의 음악 학교 기관, 악기제작 아카데미인 5개의 루터리 아카데미 센터(Lutherie Academic Center), 140여개의 어린이 앙상블, 시몬 불리바르 오케스트라와 같은 전문 오케스트라 등이 존재하고 있다. 페스노히브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대규모의 예술교육을 사회발전의 중요한 도구로 여기며, 혁신적이며 희망적인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를 개발해 나가는 데에 힘을 쏟고 있다. 2005년에는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와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교수 및 학생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등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3) 엘 시스템아의 5대 원칙⁴⁶⁾

‘시스템아’라는 용어는 전국에 걸친 수많은 공공지원 음악교육 활동을 포함한다. 엘 시스템아는 그것을 뒷받침할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엘 시스템아는 교과과정이나 교습법은 아니다. 엘 시스템아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교습들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우 익숙한 것들이며 다른 나라의 교육 프로그램과의 주요한 차이는 철학적 기초 수준에 있다.

‘엘 시스템아’의 전문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인 조나단 앤드류 고비아스(Jonathan Andrew Govias)는 뉴클레오를 답사하고 실제로 지도한 경험을 통해 엘 시스템아에서 교육되고 있는 지도 원칙을 5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표 II-1>와 같다.

46) 꿈의 오케스트라, <http://www.orchestrakids.or.kr>, 포커스: 엘 시스템아의 5대 기본원칙

<표 II-1> 엘 시스템의 5대 원칙⁴⁷⁾

원칙	특성
사회적 변화 (Social Change)	음악적인 수월성 추구를 통한 사회변혁
합주교육(Ensembles)	오케스트라나 합창 경험 중요시
높은 교육 횟수(Frequency)	장기간 매주 수차례 모임
접근성(Accessibility)	엘 시스템 프로그램은 무료이고, 선택적 선발이 아님
연결성(Connectivity)	모든 뉴클레오는 도시, 광역 및 국가 수준으로 연결되어 있어 전국의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 및 기회를 제공하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

이 외에도 미션을 위한 열정, 결과물의 질적 수준, 뛰어난 정부의 지원과 리더쉽, 도덕적이며 책임감이 있는 재무관리, 혁신과 학습에의 몰두, 정치적 중립을 엘 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성공적인 조직의 특성으로 추가하였다.⁴⁸⁾

(2) 한국형 엘 시스템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엘 시스템 형 오케스트라 교육운동의 도입이 거론되기 이전에도 사회성을 함양한 예술교육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으며, 공공과 민간에서는 이와 동일한 맥락의 교육 활동들이 운영되고 있었다.

엘 시스템 형 오케스트라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 클래식계를 놀라게 한 구스타보 두다멜의 LA필하모닉 입성과 2008년 시몬 볼리바르 심포니 오케스트

47) 서지혜, 이진숙, 전계서, p. 70, 재구성

48) 서지혜, 이진숙, 상계서

라의 내한 공연을 기점으로 촉발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관련 다큐와 영화, 서적을 통해서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에 대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교육적, 사회적 효과에 영향을 받아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엘 시스테마 형 오케스트라를 롤 모델로 삼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다.⁴⁹⁾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엘 시스테마형’ 오케스트라는 다음과 같다.

1) 꿈의 오케스트라

2010년 문화부는 엘 시스테마에 영감을 받아 전국 8개 지역을 거점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오케스트라 교육 사업’을 시작했다.⁵⁰⁾ 꿈의 오케스트라는 ‘상호 학습’과 ‘협력’을 이끌어내어 단원 개인의 성장과 지역사회와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와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이 거점이 되어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케스트라 활동대상의 범위를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으로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의 아동까지로 늘려 오케스트라 활동의 참여를 유도한다.

꿈의 오케스트라 추진 방향은 ‘음악을 위한’ 음악적 성취보다는 ‘음악을 통한’ 아동의 자존감 고취, 지역사회의 문화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의 변화를 추구한다. 뛰어난 연주자 양성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의 신체적·인지적 발달, 음악적 수준을 고려한 엘시스테마 철학 및 교육방법론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및 특별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행한다.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은 2010년부터 실행된 ‘실행 네트워크’와 그 이후에

49) 신소영, “엘 시스테마 형 오케스트라의 확산 분석과 국내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과정, 2013, p. 74

50) 서지혜, 이진숙, 전계서, p. 92

실행된 ‘지원 네트워크’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 진행되고 있는데 모두 직·간접적으로 행정적인 면을 담당하고 있다. 이 행정 주체와 교육주체의 상시적이고 개방적인 의견수렴의 과정과 논의를 통한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협력하여 지역별 거점기관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오케스트라 운영의 구조를 형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모델을 구현하여 추진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⁵¹⁾ 이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협력기관과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도 오케스트라가 자립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반을 확보한다. 또한 꿈의 오케스트라는 엘 시스템의 5대 원칙과 비슷한 맥락의 행정 5원칙과 교육 7원칙을 세우고 효율적·효과적인 추진방향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한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단원들을 위한 이음캠프 및 합동 프로그램, 강사를 위한 연수 및 워크숍을 운영하고, 오케스트라 평가 컨설팅과 연구개발의 역할을 하는 간접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실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개발 및 운영을 위해 교육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교육 수혜 기회를 마련하고, 자발적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기관을 두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거점기관은 전문적인 엘 시스템형 오케스트라 교육을 실행하고 지원해주는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네트워크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거점기관은 오케스트라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 및 추진, 행정 및 교육에 관한 제반 관리 및 운영, 공연을 통한 문화나눔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역할을 한다. 거점기관은 예비거점기관과 신규/연속 거점기관, 지역협력 거점기관으로 이어지며 단계적으로 운

51) 서지혜, 이진숙, 상계서, p. 10

영·지원된다. 거점기관은 2010년 8개소에서 시작하여 2011년 9개소, 2012년 19개소, 2013년 30개소, 2014년 35개소가 운영되었다.⁵²⁾

2) 학생오케스트라

2011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서 지원된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은 학교를 거점으로 하여 학교의 공간적, 행정적, 인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교 현장에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지원함으로써 체계화된 예술교육을 실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생오케스트라는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교과부-문화부 학교 예술 및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2010년 유네스코 ‘서울선언’에 사업의 근거를 두고 있다.

주입식 중심 교육에서 능동적이고 확장적·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근 문화를 중요시하는 학교교육의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문화예술교육의 비중을 대폭 보강하여 문화예술중심의 창의교육의 일환인 오케스트라를 공교육 내에서 실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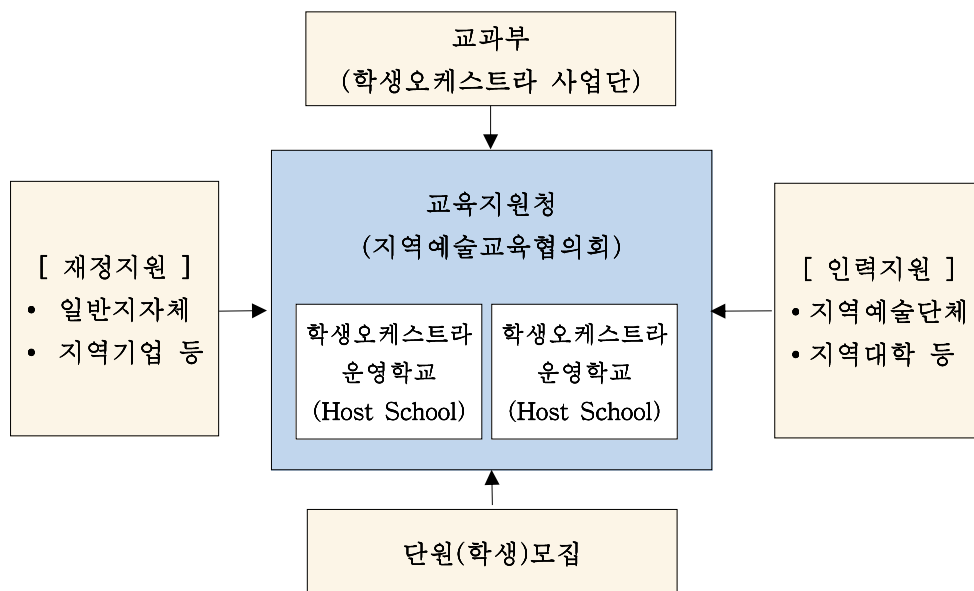
학생오케스트라는 문화소외지역이나 학교폭력 심각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단원 선정에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예술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악기를 배우고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계발하게 하며, 음악을 통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⁵³⁾

학생오케스트라는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을 총괄 지원한다. 교육지원청은 지역의 문화예술계, 예술대학, 예술전문가, 지자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지역예술교육협의회’와의 협력을

52) 꿈의 오케스트라 홈페이지(www.orchetarakids.or.kr), 2015년 12월 18일 검색

53) 상계서, pp. 67~68

통해 지역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또한 동 협의체를 통해 악기강사·재정 등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여 단기적으로는 악기강사풀 등 인력지원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지원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지역별 지원체계가 일정 수준 확보되면 교육부에서는 오케스트라 학교를 선정한다. 선정된 학교에 교육부는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한 초기 비용지원과 예술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학생오케스트라 사업단’ 운영을 통해 관계자 연수, 컨설팅, 자료개발 등을 지원한다. 학생 오케스트라의 운영 모형은 <그림 II-1>과 같다.⁵⁴⁾



<그림 II-1>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모형

54)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조건 보도자료“, 2013, 재구성, 2015년 4월 12일

2011~2013년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운영학교 현황은 2011년 65개교가 선정되었으며, 2012년 상반기 85개교, 2012년 하반기 150개교, 2013년 100개교를 선정하여 총 400개교가 운영되었다. 이 중 초등학교의 수가 191개교, 중학교 136개교, 고등학교 66개교, 특수학교 7개교, 국악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학교 수는 58개교로 조사되었다.⁵⁵⁾ 2011년 도입 첫 해에 지정된 65개교는 2014년을 기준으로 3년간의 기본 지원을 받아 지원이 끝나지만 기존 운영학교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3년 간 지원이 끝난 65개교를 제외하고 새롭게 선정되는 100개교,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 학교 550개교를 포함하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학생오케스트라 시행 학교는 2014년 기준으로 총 985개교이다.⁵⁶⁾

3) 우리동네 예술학교

2009년 5월 서울시와 아동복지 차원에서 엘 시스템의 모델을 검토하기 위해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한국형 엘 시스템 기초조사’를 시행하였다. 엘 시스템과 해외 엘 시스템형 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시행 시 주요 이슈들을 모아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4년 시범사업으로의 계획이 승인되었다. 이 사업이 바로 2010년부터 서울시와 서울시향의 지원으로 시작된 ‘우리동네 오케스트라’이다. 4년의 시범사업을 끝으로 2014년부터는 서양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국악, 밴드, 뮤지컬로 장르를 넓히는 정책에 따라서 ‘우리동네 예술학교’로 명칭을 바꾸어 8개의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다.⁵⁷⁾

55)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2013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 현황, 2015년 4월 12일

56)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교육부, 올해 650개교에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2015년 8월 18일

57) 서지혜, 이진숙, 전계서, p. 90

우리동네 예술학교는 사회취약계층 가정 아동들을 주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교육 및 뮤지컬 교육을 시행하여 문화예술교육에서 소외된 아동들에게 클래식 악기와 뮤지컬을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 및 연주, 공연활동을 통해 공동체를 통한 존중과 배려, 자존감과 동기부여, 책임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진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예술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자신감, 협동심, 배려심, 책임감, 상상력, 감각 및 감성, 학습능력 향상 등 전인적인 학습과 발달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동네 예술학교의 운영시스템은 서울특별시, 서울시립교향악단, 자치구, 운영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로 이루어진다.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지원, 네트워크 관리를 담당하며, 서울시향에서 사업계획 및 방향 제시, 자원 및 관리감독, 통합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한다. 자치구에서는 교육공간 지원, 행정지원, 자치구비 지원을 하며,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기관에서는 강사관리, 교육진행, 교육생 관리 같은 실질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⁵⁸⁾

3. 충북지역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현황

(1) 충북지역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현황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학생오케스트라는 총 400여개이며 초등학교 191개교, 중학교 136개교, 고등학교 66개교이며 이 중 특수학교 7개교, 국악 오케스트라 58개교가 선정이 되었다. 2014년에는 650개교를 선정하여 100개교는 신규창단, 나머지 550개교는 자생적 운영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다. 3년

58) 서울시립교향악단, <http://www.seoulphil.or.kr>, '우리동네 예술학교'

의 정부지원이 끝나는 학생오케스트라를 제외하고 총 985개교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이 중 2011년~2013년까지의 충북지역 학생오케스트라의 운영현황은 <표 II-2>와 같다.

<표 II-2> 충북지역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 현황(2011~2013)⁵⁹⁾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1년	괴산중평 문광초, 목도초, 소수초, 보은 삼산초	괴산중, 보은 속리산중	-
2012년 상반기	단양 상진초, 진천 한천초, 청원 문의초	황간중*	-
2012년 하반기	옥천 군남초, 음성 쌍봉초, 용천초, 제천 왕미초, 진천 초평초, 충주 교현초*	괴산 오성중, 단양중, 영동중	영동고*
2013년	영동 양산초, 청주 강서초, 충주 탄금초	청주 복대중	충원고*
총	16 개교	7 개교	2 개교

*국악학생오케스트라

2011년 창단된 학생오케스트라는 총 65개교로 이 중 충북 지역의 학생오케스트라는 총 6 개교가 창단되었다. 2012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학생오케스트라를 선발하였으며, 상반기에 총 85개교 창단, 하반기에 총 150개교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창단하게 되었다. 이 중 충북지역 학생오케스트라는 총 4 개교가 창단되었고 2013년에는 전국 총 100개교가 선정이 되어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이 중 충북지역 학생오케스트라는 총 5개의 학교가 선정이 되어 지원을 받게 되었다. 2014년에는 총 650개교가 지원을

59)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2013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학교 현황, 재구성

받게 되었는데 이 중 충북지역 학생오케스트라는 현재 총 48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2014년 운영현황 자료에는 학교 수는 제시되어 있었으나 학교명은 확인할 수 없어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 충북지역 학생오케스트라 우수운영 사례⁶⁰⁾

우수운영 사례는 언론에 기사화 된 학교들 중 학생오케스트라 현장 컨설팅 실사 지표를 참고·분석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학교와 다른 논문에서 언급된 우수운영 사례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1) 괴산 ‘느티울 하모니 오케스트라’

느티울 하모니 오케스트라는 지역연합으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생오케스트라로 선정된 문광초등학교, 목도초등학교, 소수초등학교, 괴산중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학생들에게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적 능력, 인성을 함양시키고자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의 오케스트라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느티울 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중심학교인 문광초등학교는 챔버 오케스트라, 윈드 오케스트라의 형태로 구성하고, 오케스트라 전용 연습실인 문광 느티홀을 개설하여 연습에 필요한 기자재와 음악 감상 시설, 악기 보관함을 갖추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느티울 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운영은 학기중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 학교, 방학을 이용한 집중캠프, 예술 동아리 형태로 운영된다. 또한 지역전문연주

60) 충북일보 www.inews356.com, 2013, 2015년 7월 18일

단체를 활용한 교육기부 및 연주 지도를 정례화하고, 초청레슨을 실시하여
단원들의 문화 예술감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오케스트라 활동이 더욱
의미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느티울 하모니 오케스트라는 2011년 창단연주회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활발
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방학을 이용하여 지역전문연주단체가 주최한 음악회
에 참가해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였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주
최한 전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 충북대표로 참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뿐만 아니라 지역주
민들에게 음악으로 봉사하는 활동도 계획하여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
화예술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

2) 보은삼산 ‘그린나래 오케스트라’

2011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창단된 그린나래 오케스트라는
윈드 오케스트라이며 전용 오케스트라실과 50여개의 악기를 갖추고, 유명강
사를 초빙하여 오케스트라의 초석을 닦아오고 있다. 합주는 평일을 이용하
여 연습하고, 개인 레슨 및 파트 연습은 주5일제를 이용하여 토요일 오전시
간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다. 방학기간에도 집중지도 프로그램을 구성해
단원들의 실력향상에 힘쓰고 있다.

그린나래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교내 자체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고 있으며, 학교 내 문화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 또한 매년 한
번의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여 연습한 다양한 곡들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선
보이는 기회를 가진다. 이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관심을 이끌어 문화에 대한
관심과 예술적 감성을 함양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교외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보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한 ‘청소년 한마음 대축

제’ 와 지역적인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충북관악협회에서 주관하는 ‘충북관악제’에 유일한 초등학교 팀으로 참여하여 큰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제 1회 충북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도 초청되어 장미의 축전, 신세계 교향곡을 연주하기도 하였다.

3) 황간중학교 ‘소라 국악관현악단’

황간중학교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 계발 및 취미 특기 신장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동아리 중심의 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2년 학생오케스트라에 선정되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8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악기를 정비하고 전문강사 지도시간도 확대되어 운영에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난계 박연의 고장으로 잘 알려진 영동은 황간중학교 뿐만 아니라 이 지역 다른 학교의 학생오케스트라도 난계의 후예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해왔으며, 학생오케스트라로 지정된 이후 재정적인 도움으로 더욱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 학교의 학생국악오케스트라인 ‘소라국악관현악단’은 2012년 ‘충북학생국악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기악 부문 금상을 수상하였고, 제45회 난계국악축제 개막 행사로 진행된 퍼레이드에 사물놀이 ‘터울림’이 황간면 대표로 참가해 거리 연주를 하기도 하였다.

4) 충북 영동고 국악관현악단 ‘소리마루’

‘소리마루’는 조선 초기의 문신이자 천재적인 음악가 박연 선생의 고향인 충북 영동에서 국악을 배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악 전통을 계승하며 해

마다 정기 연주회를 가지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인 영동고는 교육부 지정 학생국악오케스트라로 2012년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되었고, 그 전에도 국악관현악단이 2008년부터 운영되어 왔었다. ‘소리마루’의 단원들은 천편 일률적으로 진행되던 방과후 활동에서 벗어나 인성교육을 위한 특기적성프로그램으로 영동군청과 연계하여 난계국악단 단원의 지도를 무료로 강습 받고 있다. 국악을 통해 음악이란 하모니를 배우고 그 속에서 존중과 배려심, 인내심을 배우고 있다.

‘소리마루’는 충북 학생 국악경연대회와 박연 국악 학생경연대회에서의 금상 수상, 충북도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 참가 공연, 2013년과 2014년 한 차례씩 정기연주회 개최 등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2014년 12월 31일에는 학교예술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소리마루’ 학생국악오케스트라는 국악을 배우고, 음악전통을 계승하면서 연주회를 통해 지역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다.

5) 충주 교현초 학생국악오케스트라 ‘해오름’

충주 교현초의 학생 국악오케스트라 ‘해오름’은 명칭은 어둠을 뚫고 희망찬 해가 솟아올라 온 누리를 비추듯 아름다운 우리의 가악과 소리를 배우고 발전시켜 온 누리에 널리 퍼뜨린다는 뜻으로 이 학교 교가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악성 우륵의 고장인 충주에서 신라시대의 위대한 음악가의 예술혼을 이어 받아 우리 음악에 대한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004년 충주시우륵국악단과 협의하여 창단되었다. 2012년 하반기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학생국악오케스트라 ‘해오름’으로 거듭나 발대식과 함께 정기연주회를 가졌으며,

2012년 충북학생국악경연대회에 참여해 관현악 단체부분 금상을 수상하였다. 정규수업 외에도 국악당의 음악체험학습을 통하여 국악연주 감상 및 민요 배우기, 다례체험 등 다양한 문화를 접하여 전통문화의 이해가 깊어지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 학교는 2013년 기준 25현 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 피리, 대금, 타악, 12현 가야금, 신디사이저 총 9부서에서 충주시립우륵국악단 단원의 전문적 지도아래 60여명의 어린이들이 기량을 갈고 닦고 있다.

우수운영 사례로 제시된 학교들은 학생오케스트라 지역성 특성을 고려하여 잠재된 문화예술 인프라를 충분히 고려하였고, 학교에 실정에 맞춰 오케스트라 유형을 선택하여 사업의 취지에 대한 이해가 높다. 또한 연습시간을 방과 후, 특기적성 프로그램, 창의적 체험활동, 방학을 이용한 집중캠프 등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참여 가능한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이용하였다.

교현초의 경우 정규수업 외 국악오케스트라 학생들이 음악체험학습을 경험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악기 강사의 경우도 지역의 시립교향악단이나 전문연주단체의 도움을 받아 악기별 강사의 전문성이 명확하게 하여 교육인력의 업무분장과 효율성 및 전문성에 도움을 주었다.

우수 운영 중인 학교들은 전용 오케스트라실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연합으로 오케스트라를 구성한 학교에서는 이와 더불어 음악감상시설, 악기보관함 등의 시설도 함께 갖추어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사업의 성과면에서도 다양한 교내 자체 행사, 정기연주회, 지역행사, 대회 출전, 페스티벌 참가 등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2011년~2013년까지 선정된 총 400여개 학생오케스트라 중에서 충북지역 학생오케스트라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이다. 연구대상은 2011년~2013년까지 선정된 충북지역 초·중학교 학생오케스트라이며, 2014년에 선정된 학교는 정확한 학교명을 알 수 없어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선정된 충북지역 학생오케스트라는 총 25개교이며, 이 중 설문조사를 거부한 학교 3곳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설문협조를 구할 수 없었던 학교 4곳, 교육부의 지원을 받았으나 아직 운영하고 있지 않은 학교 2곳을 제외한 16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연구대상은 설문에 협조한 14개교 충북지역 학생오케스트라 14개교 담당교사와 135명 오케스트라 단원들이며, 이 중 담당교사만 설문에 협조한 학교는 8개교이고, 담당교사와 학생 모두 설문에 협조한 학교는 6개교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었다. 전달방법은 전자우편 8곳, 우편 7곳, 직접 방문한 학교 1곳으로 총 14개교의 설문지를 전자우편 7곳, 우편 5곳, 2곳은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연구방법은 설문지 조사법으로 먼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중 충북지역에 해당하는 학교들을 확인하여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보고, 전화연락을 통해 오케스트라 담당 교사의 설문 협조 여부를 파악하였다. 학생오케스트라가 운영되지 않는 2곳을 제외하고 직접전달질문지법으로 1부, 나머지 학교는 전자우편과 메일로 발송하여 설문을 요청하였다.

<표 III-1> 연구 절차

구분	내용
연구기간	2015년 4월 6일 ~ 2015년 5월 8일
연구대상	충북지역 초·중학교 학생오케스트라 14개교 담당교사 14명, 학생 135명

2.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이 연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창단된 충북지역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사용한 조사 연구이다. 사용된 설문지는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남혜선(2009), 정수현(2012), 최정민(2012)의 설문내용을 참고하여 항목을 재구성하였다.

학생용 설문지는 기초조사 11문항, 교육적 효과조사 6문항, 문제점 및 개선점 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7문항은 객관식, 1문항은 서술형이다. 문항은 다지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분석방법은 회수된 설문지를 대상으로 빈도를 산출하고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설문지의 세부내용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학생용 설문지 세부 내용

설문영역	세부 내용	문항 수
기초조사	1. 성별 2. 학교급과 학년 3. 연주악기 4. 연주악기 만족도 4-1. 불만족 이유 5. 악기 배운 기간 6. 악기 획득 경로 7. 개인 실기 지도 여부 7-1. 실기 지도 장소 8. 참여 동기 9. 연습시간 적정도	11
교육적 효과조사	10. 취미와 적성개발 11. 음악과목 이해 12. 자신감 13. 화음 형성에 대한 즐거움 14. 학업의 스트레스 감소 15. 음악에 대한 애호심	6
문제점 및 개선점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 바라는 점	1
	총	18

교사용 설문지는 기초조사 5문항, 교육적 효과 6문항, 운영실태 조사 15문항, 합주지도 실태 조사 8문항, 문제점 및 개선점 조사 1문항 총 3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32문항은 객관식, 1문항은 서술형이고, 문항은 다지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의 구성 내용은 <표 III-3>과 같다.

<표 III-3> 담당 교사용 설문지 세부 내용

설문영역	세부 내용	문항 수
기초조사	1. 선생님의 전공 2. 오케스트라 담당 교사 3. 오케스트라 내 담당 교사 역할 4. 정규 학교 음악 수업 지도 기간 5. 창단연도	5
교육적 효과	6. 취미와 적성계발 7. 진로탐색의 기능 8. 사교육 감소의 효과 9. 악기 연주 실력 향상 10. 사회성과 협동심 발달 11. 정서안정에 도움	6
운영실태 조사	12. 운영 인력 구성과 인원 13. 오케스트라 유형 14. 단원 수 15. 활동 학년 구성 16. 단원 모집 방법 16-1. 단원 선발 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 17. 개인악기 선정 시, 학생의견 고려 여부 18. 연습장소 18-1. 파트별 연습장소 19. 구비시설 19-1. 보충할 기자재 20. 일 년 예산 20-1. 지원 예산의 충분 여부 21. 예산의 주된 출처 22. 교사 연수 프로그램	15

합주실태 조사	23. 주 당 파트별 연습 횟수와 연습시간 24. 주 당 합주 횟수 25. 연습시간 대 26. 지도 계획 27. 지도곡의 종류 28. 곡 선정 시 고려하는 점 29. 연주 악보의 출처 30. 지난 한 해 연주 횟수와 연주회 당 연주되는 곡의 수	8
문제점 및 개선점	어려운 점 개선점 자생적인 운영 방안	1
	총	33

IV. 연구분석 및 결과

1. 학생 설문 결과

가. 기초조사

1) 학교 정보와 성별

<표 IV-1> 성별에 따른 학교급과 오케스트라 구성 학년

학년	초등학교			학년	중학교		
	성별	N	%		성별	N	%
1 ~ 2	남	-	-	1	남	-	-
	여	-	-		여	4	3.0
3 ~ 4	남	16	11.9	2	남	1	0.7
	여	18	13.3		여	5	3.7
5 ~ 6	남	25	18.5	3	남	2	1.5
	여	45	33.3		여	19	14.1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생들의 인원수는 총 135명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은 응답자가 없었고, 3~4학년은 여학생 13.3%(N=18), 남학생 11.9%(N=16)의 응답률을 보였고, 5~6학년은 여학생 33.3%(N=45), 남학생 18.5%(N=25)의 응답률을 보였다. 중학교에서는 1학년 남학생은 응답자가 없었고, 여학생은 3.0%(N=4)의 응답자가 있었다. 2학년은 여학생 3.7%(N=5), 남학생 0.7%(N=1)의 응답자가 있었으며, 3학년 여학생은 14.1%(N=19), 남학생 1.5%(N=2)의 응답자가 있었다. 초·중학교 모두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보다 초등학교의 응답자가 많았다.

2) 연주 악기

연구 대상 학교에서 각 학생들이 담당하는 악기의 종류를 구분하여 일반 오케스트라와 국악 오케스트라로 나누어 <표 IV-2>, <표 IV-3>에 제시하였다.

<표 IV-2> 일반 학생오케스트라 연주 악기

악기명	N	%
바이올린	44	38.2
첼로	20	17.4
클라리넷	16	14.0
플루트	14	12.1
타악기	12	10.4
비올라	4	3.5
색소폰	2	1.7
콘트라베이스	1	0.9
총	115	100

일반 오케스트라에 속한 학생의 연주 악기 비율은 바이올린 38.2% (N=44), 첼로 17.4%(N=20), 클라리넷 14.0%(N=16), 플루트 12.1%(N=14), 타악기 10.4%(N=12), 비올라 3.5%(N=4), 색소폰 1.7%(N=2), 콘트라베이스 0.9%(N=1)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학생오케스트라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악기는 바이올린으로 나타났다.

<표 IV-3> 국악 학생오케스트라 연주 악기

악기명	N	%
소금	6	30
아쟁	5	25
해금	4	20
25현 가야금	3	15
대금	1	5
거문고	1	5
총	20	100

국악 오케스트라에 속한 학생의 연주 악기 비율은 소금 30%(N=6), 아쟁 25%(N=5), 해금 20%(N=4), 25현 가야금 15%(N=3), 대금과 거문고 각각 5%(N=1)순으로 나타났다. 국악 학생오케스트라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는 악기는 소금으로 나타났다.

<표 IV-4> 연주 악기에 대한 만족도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N	%	N	%
오케스트라에서 현재 다루고 있는 악기에 대해 만족합니까?	131	97.0	4	3.0

학생오케스트라 내에서 다루고 있는 악기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97.0%(N=131)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3%(N=4)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오케스트라 내에서 다루고 있는 악기에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오케스트라 내에서 다루고 있는 악기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바이올린을 하면서 신체적인 불편함을 느낀다는 의견이 1명, 연

습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1명, 악기가 복잡하고 어려워져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2명이였다.

3) 악기 배운 기간

<표 IV-5> 악기를 배운 기간

	구분	N	%
오케스트라에서 현재 다루고 있는 악기를 배운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6개월 미만	29	21.5
	6개월 이상 ~ 1년 미만	7	5.2
	1년 이상 ~ 2년 미만	35	25.9
	2년 이상 ~ 3년 미만	37	27.4
	기타	27	20.0
	총	135	100

오케스트라에서 현재 다루고 있는 악기를 배운 기간을 묻는 질문에 2년 이상~3년 미만이 27.4%(N=37)로 가장 많았으며, 1년 이상~2년 미만이 25.9%(N=35), 6개월 미만 21.5%(N=29), 기타 20.0%(N=27), 6개월 이상~1년 미만 5.2%(N=7)순의 비율을 보였다. 기타의견으로는 3년 이상~7년 이하까지 다양한 악기 경력 기간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오케스트라에서 현재 다루고 있는 악기를 배운 기간은 2년 이상~3년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악기 습득 경로

<표 IV-6> 악기의 습득 경로

	구분	N	%
오케스트라에서 현재 다루고 있는 악기의 습득 경로는?	학교에서 빌려 줌	76	56.3
	학교에서 무료 제공	43	31.9
	소장하고 있던 악기	3	2.2
	활동을 시작하면서 구입한 악기	11	8.1
	기타	2	1.5
	총	135	100

오케스트라에서 현재 다루고 있는 악기의 습득 경로를 묻는 질문에 학교에서 악기를 빌려 사용한다는 의견이 56.3%(N=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31.9%(N=43)은 학교에서 무료 제공, 8.1%(N=11)은 활동을 시작하면서 구입한 악기, 2.2%(N=3)은 소장하고 있던 악기, 기타 1.5%(N=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오케스트라에서 학생들이 현재 다루고 있는 악기의 습득 경로는 학교에서 악기를 빌려 사용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개인 실기 지도 여부

<표 IV-7> 오케스트라 활동 외 개인 실기 지도 여부

	받고 있다		받고 있지 않다	
	N	%	N	%
현재 학생오케스트라 외의 개인 실기 지도를 받고 있습니까?	46	34.1	89	65.9

현재 학생오케스트라 활동 외에 개인 실기 지도 여부를 묻는 질문에 65.9%(N=89)가 받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 34.1%(N=46)은 받고 있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오케스트라 외의 개인 실기 지도를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8> 오케스트라 활동 외 실기 지도를 받고 있는 장소

	구분	N	%
오케스트라 활동 외의 음악 실기 지도를 받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학원	4	8.7
	방과후 교실	36	78.3
	지역아동센터	3	6.5
	개인레슨	2	4.3
	기타	1	2.2
	총	46	100

학생오케스트라 활동 외에 개인 실기 지도를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들 중 78.3%(N=36)가 방과후 교실이라고 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나머지는 학원 8.7%(N=4), 지역아동센터 6.5%(N=3), 개인레슨 4.3%(N=2), 기타 2.2%(N=1)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에는 교회가 있었다.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활동 외에 가장 많이 개인 실기 지도를 받는 장소는 방과후 교실로 나타났다.

6) 참여 동기

<표 IV-9> 참여 동기

	구분	N	%
학생오케스트라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선생님의 권유	23	17.0
	부모님의 권유	30	22.2
	친구의 권유	19	14.1
	취미활동을 위해서	53	39.3
	기타	10	7.4
	총	135	100

학생오케스트라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 39.3%(N=53)이 ‘취미 활동을 위해서’ 라고 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나머지는 부모님의 권유 22.2%(N=30), 선생님의 권유 17.0%(N=23), 친구의 권유 14.1%(N=19), 기타 7.4%(N=10)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본인의 희망, 방과 후 일정에 있어서, 호기심에 한다는 의견, 축제에 서기 위해 악기를 배운다는 의견, 연주하는 것을 보고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오케스트라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학생들이 개인의 취미활동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7) 연습시간 적정도

<표 IV-10> 연습시간 적정도

	적당하다		부족하다		너무 많다	
	N	%	N	%	N	%
학생오케스트라 연습시간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99	73.3	20	14.8	16	11.9

학생오케스트라의 연습시간의 적정도를 묻는 질문에 73.3%(N=99)가 ‘적당하다’고 답하였고, 14.8%(N=20)는 ‘부족하다’, 11.9%(N=16)는 ‘너무 많다’고 답하였다. 학생들은 오케스트라 연습시간이 대부분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교육적 효과

교육적 효과에서는 학생들이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으로 인해 취미와 적성개발, 음악과목의 이해, 자신감, 화음 형성에 대한 즐거움, 학업의 스트레스 감소, 음악에 대한 애호심, 배운 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취미와 적성개발

‘학생오케스트라를 통해 자신의 취미와 적성개발에 도움이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51.9%(N=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35.5%(N=48)이 ‘그렇다’, 12.6%(N=17)이 ‘보통이다’라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과반수가 넘는 학생들이 학생오케스트라가 학생들의 취미와 적성개발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음악과목의 이해

<표 IV-11> 음악과목의 이해

	구분	N	%
학생오케스트라가 음악과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그렇다	70	51.9
	그렇다	44	32.6
	보통이다	18	13.3
	그렇지 않다	2	1.5
	전혀 그렇지 않다	1	0.7
	총	135	100

‘학생오케스트라가 음악과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51.9%(N=70), ‘그렇다’ 32.6%(N=44), ‘보통이다’ 13.3% (N=18), ‘그렇지 않다’ 1.5%(N=2), ‘전혀 그렇지 않다’ 0.7%(N=1)의 비율을 보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생오케스트라가 음악과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자신감

<표 IV-12> 자신감 형성

	구분	N	%
학생오케스트라를 통해 자신감을 쌓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70	51.9
	그렇다	35	25.9
	보통이다	25	18.5
	그렇지 않다	5	3.7
	전혀 그렇지 않다	-	-
	총	135	100

‘학생오케스트라를 통해 자신감을 쌓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51.9%(N=70), ‘그렇다’ 25.9%(N=35), ‘보통이다’ 18.5%(N=25), ‘그렇지 않다’ 3.7%(N=5)의 비율을 보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생오케스트라를 통해 대부분 자신감을 쌓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화음 형성의 즐거움

<표 IV-13> 화음 형성의 즐거움

	구분	N	%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화음을 만들어 연주하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그렇다	79	58.5
	그렇다	34	25.2
	보통이다	19	14.1
	그렇지 않다	3	2.2
	전혀 그렇지 않다	-	-
	총	135	100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화음을 만들어 연주하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58.5%(N=79), ‘그렇다’ 25.2%(N=34), ‘보통이다’ 14.1%(N=19), ‘그렇지 않다’ 2.2%(N=3)의 비율을 보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화음의 즐거움을 느끼며 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학업의 스트레스 감소

<표 IV-14> 학업 스트레스 감소

	구분	N	%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52	38.5
	그렇다	32	23.7
	보통이다	38	28.2
	그렇지 않다	8	5.9
	전혀 그렇지 않다	5	3.7
	총	135	100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38.5%(N=52)가 ‘매우 그렇다’ 고 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보통이다’ 28.2%(N=38), ‘그렇다’ 23.7%(N=32), ‘그렇지 않다’ 5.9%(N=8), ‘전혀 그렇지 않다’ 3.7%(N=5)순으로 나타났다.

6) 음악에 대한 애호심

<표 IV-15> 음악에 대한 애호심 형성

	구분	N	%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음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생겼습니까?	매우 그렇다	57	42.2
	그렇다	50	37.0
	보통이다	20	14.8
	그렇지 않다	7	5.2
	전혀 그렇지 않다	1	0.8
	총	135	100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음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생겼습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42.2%(N=57)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나머지는 ‘그렇다’ 37.0%(N=50), ‘보통이다’ 14.8%(N=20), ‘그렇지 않다’ 5.2%(N=7), ‘전혀 그렇지 않다’ 0.8%(N=1)순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생오케스트라를 하면서 음악에 대한 애호심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7) 배운 점

<표 IV-16> 단원으로써 배운 점

	구분	N	%
학생오케스트라를 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점은 무엇입니까?	음악적 지식	40	29.6
	무대경험을 통한 자신감	37	27.4
	함께하는 협동심	39	28.9
	책임감	9	6.7
	기타	10	7.4
	총	135	100

학생오케스트라를 하면서 배운 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음악적 지식이 29.6%(N=40)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28.9%(N=39)가 함께 하는 협동심, 27.4%(N=37)이 무대경험을 위한 자신감, 기타 7.4%(N=10), 책임감 6.7%(N=9)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부분 학생들이 학생오케스트라를 통해 음악적 지식, 함께하는 협동심, 무대경험을 통한 자신감을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문제점 및 개선점 조사

다음은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 바라는 점에 대한 자유로운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1) 좋은 점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의 좋은 점에 대해 응답한 학생의 자유로운 답변을 정리하고 공통된 의견을 묶어 <표 IV-17>과 같이 정리하고 빈도수로 나타내었다.

<표 IV-17> 단원으로써 좋은 점

구분	N
악기 연주의 즐거움	14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것의 즐거움	11
선생님의 태도와 열성적인 가르침	4
협동심 향상의 즐거움	4
음악에 대한 애호심 증가	3
대회 수상, 봉사활동 등 연주로 인한 활동의 즐거움	3

무대를 통한 자신감 향상	3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이해 증가	2
여가 시간 활용	1
집중력 향상	1
새로운 친구와 사귄	1
총	47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좋았던 점으로는 악기 연주의 즐거움이 N=14로 가장 많았으며,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것의 즐거움이 N=11로 그 다음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였다. 이 외에도 선생님의 태도와 열성적인 가르침, 협동심 향상의 즐거움, 음악에 대한 애호심 증가, 대회 수상, 봉사활동 등 연주로 인한 활동의 즐거움, 무대를 통한 자신감 향상,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이해 증가, 여가 시간 활용, 집중력 향상, 새로운 친구와의 사귀기를 좋았던 점으로 응답하였다.

2) 어려운 점

학생들이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한 자유로운 응답 중 공통된 의견을 구분하였고, 그에 따른 학생들의 의견을 적어보았다. 응답자의 의견 중 같은 의견은 하나의 의견으로 취합하여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8>과 같다.

<표 IV-18> 단원으로써 어려운 점

구분	의견	N
악기의 연주기술에 관한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리넷: “불기가 어렵다” · 첼로: “활잡기가 어렵다”, “너무 빠르게 할 때 어렵다” · 바이올린: “지판을 잡고, 음정 맞추기가 어렵다”, “손가락이 빨리 안 움직여서 띄엄띄엄 연주하게 된다”, “악기가 어렵고 복잡하다”, “활 잘못 썼을 때 정말 어렵다” · 타악기: “악기를 처음 배울 때 어려웠다” · 플루트: “텅잉이 잘 안되어서 어려웠다” 	13
악기 연주 특성에 따른 신체의 불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트라베이스: “베이스는 서서하니깐 다리가 아프다” · 바이올린: “서서하면 팔이 아파요”, “손가락이 짧아 음을 잡기가 힘들다” 	3
합주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아이들과 맞춰 한다는 것이 어렵다” 	1
악보읽기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보를 잘 보지 못해 어렵다” · “새 곡이 나올 때 악보 읽기가 힘들다” 	2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주하면서 언니, 오빠들과 친해지는 것이 어려웠다” · “학원시간과 겹쳐 학원에 늦게 가게 되어 힘들다” · “일정을 잘 잊어버린다” 	5
총		24

학생오케스트라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으로는 악기 연주기술에 관한 어려움이 N=1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바이올린을 할 때 가장 많은 연주 기술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악기 연주 특성

에 따른 신체의 불편함에서는 콘트라베이스는 서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다리가 아프다는 의견과 바이올린은 손가락이 짧아 음을 잡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다른 아이들과 맞춰 연주하는 합주의 어려움과 악보 읽기의 어려움이 있었고, 기타의견으로는 단원들의 친목, 다른 일정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3) 바라는 점

학생들이 학생오케스트라에 바라는 점에 대한 자유로운 답변 중 공통된 의견을 묶어 구분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그대로 표기하였으며 같은 의견은 하나의 의견으로 취합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19>와 같다.

<표 IV-19> 단원으로써 바라는 점

구분	의견	N
지속적인 오케스트라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학교 오케스트라가 계속하였으면 좋겠다” · “앞으로도 계속 오케스트라를 했으면 좋겠다” · “중학교 때도 하였으면 좋겠다” 	3
연습 일정 및 시간 조정 등 오케스트라 운영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습시간을 줄이고, 단복을 바꿔주세요” · “학원시간과 겹치는 날이 많아서 합주시간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 “연습대신 쉬는 시간이 연습시간보다 더 많은 것 같다” ·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 “연습시간을 조금만 더 줄이면 좋겠다” · “연습시간을 더 늘리고 싶다” · “조금 더 일찍 끝내주셨으면 좋겠다” · “오케스트라 교실을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 “아침에 오케스트라 하는 것을 애들이 힘들어 한다” · “오케스트라 합주 횟수를 줄이고, 시간이 더 앞으로 	14

	<p>당겨졌으면 좋겠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밌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다” · “더 좋은 악기도 오케스트라 활동에 넣어주세요” · “더 많은 악기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공연을 더 많이 경험해보고 싶다” · “합주실이 없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오케스트라에 지원을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강사선생님에 대한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들이 조금 더 수업에 열중해 주었으면 좋겠다” · “잘 혼내지 않는 선생님이 좋아요” ·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가르쳐주세요” · “계속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앞으로 더 응원해주세요” 	4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케스트라 수업 후 간식을 주었으면 좋겠다” · “간식을 주면 좋겠다” 	5
총		26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바라는 점에는 지속적인 오케스트라 활동에 관한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의견에는 3년의 재정지원이 끝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학교급이 바뀔 때도 오케스트라 활동이 연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오케스트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서는 연습시간에 대한 의견, 다양한 악기의 지원, 전용 합주실 지원, 더 많은 공연과 활동에 대한 바람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강사 선생님에 대해서는 잘 혼내지 않는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하는 선생님, 학생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선생님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오케스트라 수업 후에 간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IV-19>에서 제시하였듯이 오케스트라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에 가장 많은 바램이 있었으며(N=14), 뒤이어 간식에 관한 의견, 열정적이고 학생들을 격려하는 선생님에 대한 바램, 지속적인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바램이 있었다.

2. 담당교사 설문 결과

가. 기초조사

1) 담당교사의 전공과 오케스트라 내 역할

전체 오케스트라 담당 교사 중 5명이 초등음악교육을 전공하였고, 5명은 음악교육 외 전공자였다. 중등음악교육을 전공한 사람은 3명으로 각각 전공으로 작곡 1명, 2명은 성악이었으며, 교육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한 사람은 1명이였다.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는 초등음악교육 전공과 음악교육 외 전공자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오케스트라 내 담당교사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10명이 운영 업무 총괄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명은 지휘자의 역할만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은 1명으로 지휘자의 역할과 운영 업무 총괄을 동시에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통해 거의 대부분의 담당교사들이 운영 업무 총괄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오케스트라 담당교사

오케스트라 담당교사의 구성은 본교 교사와 외부 강사가 함께 구성된 형태 9명, 본교 교사로만 구성된 형태 4명, 외부강사로만 구성된 형태에 1명이 응답하였다. 오케스트라 담당교사의 구성은 주로 본교 교사와 외부 강사가 함께 구성된 형태이다.

3) 정규 학교 음악 수업 지도 기간

담당교사의 정규 학교 음악 수업 지도 기간을 묻는 질문에 10년 이상이 7명으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1년~5년 4명, 6년~10년 2명으로 나타났다. 1년 이하는 1명으로 가장 낮은 빈도수를 보였다. 담당교사의 정규 학교 음악 수업 지도 기간은 10년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오케스트라 수업 지도 기간

담당교사의 오케스트라 수업 지도 기간은 1년 이하 와 1년~5년이 각각 6명이었으며, 지도 경력이 없는 경우는 2명이였다. 학생오케스트라를 담당하는 교사의 오케스트라 수업 지도 기간은 대부분 1년 이하와 1년~5년로 나타났다.

5) 학생오케스트라 창단 연도

<표 IV-20> 창단연도

	구분	N
학생오케스트라 창단연도	2011년	5
	2012년 상반기	1
	2012년 하반기	8
	2013년	-
	총	14

설문에 응답한 학교의 학생오케스트라의 창단연도는 2012년 하반기 8개교, 2011년 5개교, 2012년 상반기 1개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생국악오케스트라의 경우 학생오케스트라로 지정되기 전부터 운영되어 온 학교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로부터 지정되어 지원되는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의 시작을 기준으로 하여 창단연도를 조사하였다. 학생오케스트라 설문에 응답한 학교의 창단연도는 2012년 하반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교육적 효과

학생오케스트라를 담당하면서 교사가 취미와 적성계발, 진로 탐색의 기능, 사교육 감소의 효과, 악기 연주 실력 향상, 사회성과 협동심 발달, 정서 안정 측면에서 교육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취미와 적성개발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학생의 취미와 적성개발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7명이 ‘매우 그렇다’, 7명이 ‘그렇다’ 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이 학생의 취미와 적성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진로 탐색의 기능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이 진로탐색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각각 7명이 ‘그렇다’, 5명이 ‘매우 그렇다’ 고 답하였다. 2명은 ‘보통이다’ 라고 답하여 대부분의 담당교사들은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이 진로탐색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사교육 감소의 효과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사교육 감소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10명이 ‘매우 그렇다’, 3명이 ‘그렇다’, 1명이 ‘보통이다’ 라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담당교사들은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이 학생들의 사교육 감소에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악기 연주 실력 향상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악기 연주 실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11명이 ‘매우 그렇다’, 3명이 ‘그렇다’ 고 답해 담당 교사들

은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악기 연주 실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사회성과 협동심 발달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이 발달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8명이 ‘그렇다’ 라고 답하였고, 6명이 ‘매우 그렇다’ 고 답해 담당교사들의 대부분은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이 사회성과 협동심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정서 안정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이 정서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8명이 ‘매우 그렇다’, 5명이 ‘그렇다’ 라고 답하였고, 1명은 ‘보통이다’ 라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담당교사들은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이 학생들의 정서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 운영 실태 조사

1) 운영 인력 구성 및 인원

<표 IV-21> 운영 인력 구성 및 인원

구분	지휘자	행정실무	파트별 지도강사	학부모회	외부자문 위원	기타
A 초등학교	-	1	2	-	1	-
B 초등학교	1	-	3	-	1	-
C 초등학교	1	1	4	-	-	-
D 초등학교	1	1	5	-	-	-
E 초등학교	1	1	4	-	-	-
F 초등학교	1	1	6	-	-	-
G 초등학교	1	1	5	-	-	-
H 초등학교	1	1	5	-	-	-
I 초등학교	1	-	4	-	-	-
J 초등학교	1	1	8	1	1	-
K 중학교	1	1	8	-	1	-
L 중학교	1	1	6	5	2	1
M 중학교	1	1	14	-	-	-
N 중학교	1	1	12	-	-	-
N	13	12	86	6	6	1

설문에 응답한 학생오케스트라의 운영 인력 및 인원은 지휘자 13명, 행정실무 12명, 파트별 지도강사 86명, 학부모회 6명, 외부자문위원 6명, 기타 1명으로 나타났다. 지휘자와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학교에 없거나 대부분 1명이고, 파트별 지도강사는 오케스트라의 규모에 따라 인원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학생오케스트라를 위한 학부모회와 외부자문위원은 대부분

의 학교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2) 오케스트라 유형

<표 IV-22> 학생오케스트라 유형

구분	N	구분	N
표준 오케스트라	7	국악 관현악단	1
현악 오케스트라	4	국악 현악 합주	-
관악 오케스트라	2	국악 타악 합주	-
타악 앙상블	-	총	12

이 설문에 응답한 학생오케스트라의 유형은 7개교가 표준 오케스트라였으며, 4개교가 현악 오케스트라, 2개교가 관악 오케스트라, 1개교가 국악 관현악단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설문에 응답한 학생오케스트라의 유형은 표준 오케스트라 형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단원 수

<표 IV-23> 총 단원 수

	구분	N
학생오케스트라의 총 단원 수는 ?	10명 이상 ~ 20명 미만	-
	20명 이상 ~ 30명 미만	4
	30명 이상 ~ 40명 미만	3
	40명 이상 ~ 50명 미만	3
	50명 이상	4
	총	13

학생오케스트라의 총 단원은 20명 이상~30명 미만과 50명 이상이 4명이었고, 30명 이상 ~40명 미만과 40명 이상~50명 미만이 3명이었다. 이를 통해 학생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학교의 총 단원은 20명 이상~30명 미만, 50명 이상의 오케스트라 인원 구성 형태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4) 학교급과 학년 구성

학생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는 학교급과 학년 구성 순위는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 3~4학년, 5~6학년, 중학교는 1, 2, 3학년으로 구분하여 학교급별 학년 구성 순위를 나누었다.

학생오케스트라 중 초등학교의 학년 구성순위는 5~6학년, 3~4학년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학교의 경우 K, L 학교 모두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나타났으며, M, N 학교의 경우 2학년, 3학년, 1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5) 단원 모집 방법

학생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방법은 12명이 '신청자는 다 받는다' 라고 답하였고, 1명은 오디션을 통해 선발, 나머지 1명은 기타의견을 선택하였다. 기타의견으로는 신청자 중 악기 수에 맞춰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답하였다. 오디션을 통해 단원을 선발할 경우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음악적 잠재 자질이라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오케스트라의 단원 모집은 대부분 오디션을 거치지 않고 신청자는 다 받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개인 악기 선정 시, 학생의 의견 고려

‘학생오케스트라에서 개인 악기를 선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과 만족도가 고려됩니까’ 라는 질문에 8명이 ‘그렇다’ 고 답하였고, 4명이 ‘매우 그렇다’, 2명이 ‘보통이다’ 라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오케스트라에서 개인 악기 선정 시 학생들의 의견과 만족도가 고려되는 것을 알 수 있다.

7) 연습 장소

<표 IV-24> 합주 연습 장소

	구분	N
학생오케스트라의 합주 연습 장소는 어디입니까?	음악실	1
	일반교실	2
	대강당	3
	오케스트라 전용 연습실	6
	기타	2
	총	14

학생오케스트라의 합주 연습 장소로 6명은 오케스트라 전용 연습실, 3명은 대강당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2명은 일반교실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기타 2명의 의견으로는 한 곳만 합주 연습 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대강당과 오케스트라 전용 연습실을 사용한다는 의견, 오케스트라 전용 연습실이 없어서 대강당을 이용하지만 수업이 없을 때는 영어교실을 번갈아 사용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나머지 1명은 음악실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주로 오케스트라 전용 연습실을 오케스트라 합주 연습 장소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5> 파트별 연습 장소

	구분	N
학생오케스트라의 파트별 연습 장소는 어디입니까?	음악실	-
	일반교실	5
	대강당	1
	오케스트라 전용 연습실	1
	파트별 연습실	3
	기타	4
	총	14

학생오케스트라의 파트별 연습 장소는 일반교실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의견 4명, 파트별 연습실 3명, 나머지 대강당, 오케스트라 전용 연습실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1명이였다. 기타의견으로는 일반교실과 대강당을 번갈아 사용한다는 의견과 수업이 없는 빈 교실을 이용한다는 의견이 2명, 음악실과 일반교실을 번갈아 사용한다는 의견이 2명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오케스트라의 파트별 연습 장소는 연습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 보다는 주로 일반교실과 빈 교실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구비시설

다음은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을 통해 구비한 시설을 중복하여 선택한 결과이다.

<표 IV-26>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을 통해 구비한 시설(중복 선택)

	구분	N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을 통해 구비한 시설은 무엇입니까?	보면대 및 의자	12
	악기	14
	디지털 매체 설비	-
	다양한 악곡의 악보	4
	오케스트라 전용 연습실	3
	단복구매	6
	기타	-
	총	39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을 통해 구비한 시설의 빈도수는 악기(N=14), 보면대 및 의자(N=12), 단복구매(N=6), 다양한 악곡의 악보(N=4), 오케스트라 전용 연습실(N=3)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을 통해 구비한 시설은 악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7> 오케스트라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자재(중복 선택)

	구분	N
학생오케스트라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자재는 무엇입니까?	보면대 및 의자	-
	비치용 악기	3
	디지털 매체 설비	5
	다양한 악곡의 악보	7
	파트별 연습실	5
	단복구매	4
	기타	-
	총	24

학생오케스트라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자재는 다양한 악곡의 악보(N=7)가 가장 많았고, 디지털 매체설비와 파트별 연습실(N=5), 단복구

매(N=4), 비치용 악기(N=3) 순이었다. 이를 통해 학생오케스트라를 위해 더 필요한 기자재는 다양한 악곡의 악보임을 알 수 있다.

9) 예산 및 출처

<표 IV-28> 일 년 예산

	구분	N
학생오케스트라의 일 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1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3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이하	1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3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이하	7
	총	14

학생오케스트라의 일 년 예산은 2000만원 이상~2500만원 이하에 7명,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와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에 3명이 응답하였으며, 1000만원 이상~1500만원 이상에 1명이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오케스트라의 일 년 예산은 2000만원 이상~2500만원 이하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 년 지원 예산에 대한 충분 여부에 대하여 10명은 부족하다고 답하였고, 3명은 적당하다고 답하였으며 1명은 충분하다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교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예산의 주된 출처는 10명이 기타의견에 포함되었고, 교육부 지원을 받는다는 응답은 3명, 교육지원청 1명이였다. 기타의견으로는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동시에 받고 있다는 의견이 3명, 교육부와 교육지원청, 군청지원이나 면민장학회에서 후원을 동시에 받고 있다는 의견이 3명, 교육부의 지원과 학교 자체 내에서 학생들에게 개인 수업료를 징수하여 운영한다는 의

견이 1명 있었다. 나머지 3명은 기타의견에 자세한 내용이 없었다. 학생오케스트라 예산의 주된 출처는 대부분 한 곳에서만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함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교사 연수 프로그램

<표 IV-29>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을 통해 받은 교사 연수 프로그램

	구분	N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을 통해 받은 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없다	8
	지휘법	2
	편곡법	-
	운영 컨설팅	3
	기타	1
	총	14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을 통해 받은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8명은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하였고, 3명이 운영컨설팅, 2명이 지휘법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1명의 기타의견으로는 문화공연관람에 관한 연수를 받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을 통해 과반수 이상이 교사 연수를 받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라. 합주실태 조사

1) 주 당 파트별 연습 횟수와 연습시간

<표 IV-30> 주 당 파트별 연습 횟수와 연습시간

	구분			
	파트별 연습 횟수		주 당 파트별 연습시간	
	횟수	N	시간	N
학생오케스트라 주당 파트별 연습 횟수와 연습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1회	5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2회	6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
	3회	1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3
	4회	1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3
	기타	1	기타	6
	총	14	총	14

학생오케스트라 주 당 파트별 연습 횟수에 대한 답변에 2회에 6명, 1회에 5명, 3회, 4회, 기타의견에는 1명씩 응답하였다. 주 당 파트별 연습시간은 기타의견이 6명,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4시간 이상~5시간 미만이 각각 3명,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2명이였다. 기타의견으로는 방과후 수업 시 병행한다는 의견, 학년에 따라 연습시간이 다르다는 의견, 연습시간이 다양하다는 의견, 5시간 이상을 연습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생오케스트라 주 당 파트별 연습 횟수는 주로 1, 2회 운영되었고, 주 당 파트별 연습시간은 상황에 맞게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되거나 5시간 이상 연습하거나 4시간 이상~5시간 미만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주 당 합주 횟수

<표 IV-31> 주 당 합주 횟수

	구분	N
학생오케스트라 주 당 합주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1회	6
	2회	5
	3회	1
	4회	-
	기타	2
	총	14

학생오케스트라의 주 당 합주 횟수는 1회 6명, 2회 5명, 기타 2명, 3회 1명 순이었다. 기타의견으로는 연주회 전 한 달 동안 집중 운영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오케스트라의 주 당 합주 횟수는 1회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연습 시간 대

학생오케스트라 연습 시간대는 방과후가 10명으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였고, 기타의견이 3명, 수업시작 전 아침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1명이었다. 기타의견으로는 수업시작 전 아침과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연습한다는 의견, 방과 후와 창의적 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연습한다는 의견, 기숙형 학교여서 야간에 연습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학생오케스트라 연습 시간은 방과 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지도 계획

학생오케스트라의 지도 계획에 14명 중 12명이 1년 전체를 계획하여 운영한다고 답하였고, 1명은 학기단위로 계획하여 운영, 1명은 한 달 단위로 계획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오케스트라 담당교사는 대부분 지도 계획을 1년 단위로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지도곡

<표 IV-32> 지도곡

	구분	N
학생오케스트라의 지도곡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교향곡	2
	서곡 또는 행진곡	3
	성악곡	-
	뮤지컬 또는 OST	1
	국악	1
	기타	7
	총	14

학생오케스트라에서 사용되는 지도곡의 종류는 기타의견이 7명으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였고, 서곡 또는 행진곡 3명, 교향곡 2명, 뮤지컬 또는 OST와 국악이 각각 1명의 빈도수를 보였다. 기타의견으로는 교향곡과 뮤지컬 및 OST를 같이 지도한다는 의견이 2명, 교향곡과 서곡 또는 행진곡, 뮤지컬 및 OST를 같이 지도한다는 의견이 4명, 장르를 가리지 않고 전부 지도한다는 의견이 1명 있었다. 이를 통해 많은 학생오케스트라에서 지도되는 악곡은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장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오케스트라의 지도곡 선정 시 가장 크게 고려하는 점은 8명이 '학생들의 연주 능력' 이라고 답하였으며, 4명이 '연주회 및 공연의 성격', 1명은 '편

곡의 용이성', 1명은 학생들의 흥미에 따라 지도곡 선정을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학생오케스트라가 학생들의 연주 능력을 가장 많이 고려하여 지도곡을 선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33> 연주 악보 출처

	구분	N
학생오케스트라 연주 악보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시중에 출판된 악보	2
	지인에게 의뢰해 구한 악보	4
	교과서	-
	직접 편곡 악보	-
	외부 편곡 의뢰	3
	기타	5
	총	14

학생오케스트라 연주 악보의 출처는 기타의견이 5명이었으며, 지인에게 의뢰해 악보를 구한다는 의견은 4명, 3명은 외부 편곡 의뢰, 2명은 시중에 출판된 악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의견으로는 시중에 출판된 악보와 지인에게 의뢰해 구한 악보를 같이 사용한다는 의견이 2명, 시중에 출판된 악보와 직접 편곡한 악보나 외부 편곡을 의뢰한 악보를 같이 사용한다는 의견 2명, 지인에게 의뢰하여 구한 악보와 외부 편곡을 의뢰한 악보를 같이 사용한다는 의견 1명이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오케스트라 연주 악보의 출처는 지인에게 의뢰해 구한 악보를 많이 사용하고, 다양한 출처의 악보를 같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연주 횟수와 곡의 수

<표 IV-34> 지난 한 해 동안 연주 횟수와 연주회 당 연주되는 곡의 수

	구분			
	연주 횟수		곡의 수	
지난 한 해 시행되었던 학생오케스트라의 연주 횟수와 한 연주회 당 연주되는 곡의 수는 어느정도입니까?	횟수	N	시간	N
	1회	2	1 ~ 2곡	3
	2회	3	3 ~ 4곡	7
	3회	5	5 ~ 6곡	1
	4회 이상	4	6 ~ 7곡	-
	기타	-	기타	3
총	14	총	14	

학생오케스트라의 지난 한 해 연주 횟수는 3회 5명, 4회 이상 4명, 2회 3명, 1회 2명의 빈도수를 보였다. 한 연주회 당 연주되는 곡의 수를 묻는 질문에는 3~4곡을 연주한다는 응답이 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2곡과 기타가 3명, 5~6곡이 1명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2~7곡, 10곡, 12곡을 연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통해 지난 한 해 학생오케스트라의 연주 횟수는 3회 이상이 가장 많았고, 한 연주회 당 연주되는 곡의 수는 3~4곡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문제점 및 개선점

다음은 담당교사가 학생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개선해 나아가야 할 점, 자생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자유로운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1) 어려운 점

학생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담당교사가 어렵다고 생각하였던 점을 자유 응답을 통해 답변을 통해 정리하였으며, 공통된 의견을 모아 하나의 문제로 구분한 따른 담당교사의 자세한 의견은 <표 IV-35>와 같다.

<표 IV-35> 담당교사의 어려운 점

구분	의견
연주단원 모집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연주단원 구성이 어렵다” · “소인수 학교로서 학생 수 감소로 오케스트라 단원 구성이 어렵다” · “소규모 학교라 단원 모집이 어렵다” · “학생들의 관심, 흥미의 감소로 신청자가 부족하다” · “학생의 지속적인 악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예산 확보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예산이 3년 지원되는데, 4년째부터 예산이 부족해 운영이 힘들다” ·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강사 수당 및 악기수리 유지비 확보가 불투명하다” · “교육부 지원 사업으로 운영하였으나 내년부터 예산지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속성이 어렵다”
교사 업무 과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교사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 · “지도교사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해야 하는 점이 어렵다”
강사비 지원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강사를 직접 지원하고 관리해주는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케스트라 활동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국악오케스트라가 참여할 대회 및 참여 가능한 기회가 적고, 있어도 지방의 학교는 대회 참여시 이동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악기교체를 원할 때 설득하기가 어렵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케스트라를 방과 후와 별도로 운영하여 홍보 및 동료 교사의 관심이 부족하다” · “기숙형 학교로 오케스트라 중 1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 악보를 볼 줄 모르는 학생이 따라서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연주실력의 발전이 늦다.”

담당교사가 학생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어렵다고 생각한 문제로는 소규모 학교인 경우에는 연주단원모집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한시적 지원으로 인해 예산확보가 어려워 지속적인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있었다. 또한 지도교사 혼자서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점이 어렵다고 하였고, 악기 강사에 대한 강사비가 많이 들어 강사를 직접 지원·관리해주는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오케스트라 활동으로 인한 어려움으로는 학생오케스트라가 참여할 대회 및 참여 가능한 기회가 적고, 있어도 지방의 학교가 대회 참여 시에 이동 비용이 많이 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의견과 학생들이 필요할 때 악기의 교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타의견으로는 동료교사의 관심이 필요하며, 학생의 개인차에 대한 악기 습득 능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 가기 힘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2) 개선해 나가야 할 점

담당교사가 생각하는 학생오케스트라의 개선 점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V-36> 과 같다.

<표 IV-36> 담당교사가 생각하는 개선 점

의 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학교보다는 지역연합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 “매년 1~2월 안에 오케스트라 지원 예산 확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파트별로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체제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업무 부담을 경감할 보조 인원 1명의 배정이 필요하다” • “오케스트라 창단학교에 행정실무 담당의 인력이 필요하다” •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또는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오케스트라 지도와 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개선 및 담당 교사에게 실질적인 지휘 및 운영 실체에 대한 연수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 “강사들의 성실성에 대한 감시 및 감독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 “2~3년 교육부 지원 후 자생적으로 운영에 나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 “운영 실무자와 지도강사를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예산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음악 지도강사의 수업 기술 변화와 음악의 즐거움이 느껴지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담당교사가 생각하는 학생오케스트라의 개선 점으로는 단위학교보다는 지역연합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체계, 예산의 지속적인 지원, 학부모의 인식제고와 담당교사에게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연수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강사들의 성실성에 대한 감시 및 감독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도 강사의 수업 기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3) 자생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

담당교사가 생각하는 학생오케스트라의 자생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IV-37>과 같다.

<표 IV-37> 담당교사가 생각하는 자생적인 운영 방안

의 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촌 방과 후 학교운영비 전액을 오케스트라 운영비로 사용한다” · “교육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해 주었으면 좋겠고, 지휘 및 오케스트라 지도법 연구과정이 필요하다” · “현재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있어서 월 1만원씩 수익자 방과후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지원이 끊길 경우 증가된 수익자 부담 수강료를 걷어 운영해야 할 것 같다” · “오케스트라 배지를 제작하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흥미를 유지하도록 한다” · “우수단원에 대한 자체 표창 및 시상이 필요하다” · “운영교사에 대한 자율적 예산집행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 “학생들에게 방과후 수업처럼 수업료를 징수해서 운영한다” · “대관이 어려움으로 학교로 초대하는 소규모 공연식으로 연주회를 운영한다” · “교육부의 끊임없는 지원과 지휘 연수 및 운영컨설팅이 필요하다” · “별도의 예산을 운영하였다가 추후에는 방과후 특기적성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해야 한다” · “학교장 및 교직원들의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

학생오케스트라 담당교사가 생각하는 자생적인 운영 방안에서는 농산촌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전액을 오케스트라 운영비로 사용, 수익자 부담의 수강료 징수, 오케스트라 활동을 방과 후 특기 적성으로 전환 등 주로 한시적 예산지원으로 인한 오케스트라 지속적인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을 모색해보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교육부의 오케스트라 매뉴얼 배포,

지휘 및 오케스트라 지도법에 관한 교사 연수, 우수단원에 대한 자체 표창 및 시상 필요, 오케스트라 배지를 제작하여 학생들의 지속적인 흥미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C. 결과 요약

이 연구는 2013년까지 선정된 총 400여개 학생오케스트라 중에서 충북지역 학생오케스트라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이다. 연구 대상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선정된 충북지역 초·중학교 학생오케스트라이며, 설문에 협조한 14개교 충북지역 학생오케스트라의 14개교 담당교사와 135명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조사해 본 결과, 먼저 기초조사에서 설문에 응답한 답변을 분석하면, 응답한 학교급은 초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많았으며, 이 중 여학생의 응답률이 67.4%로 남학생 32.6%보다 높게 나와 학생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는 인원의 비율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구성 학년은 초·중학교 모두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담당교사의 경우, 음악교육 외 전공이 가장 많았으며, 초등음악교육, 중등음악 교육,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자 순이었다. 이는 설문에 응답한 담당교사의 오케스트라 내 담당교사의 역할이 대부분 행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운영 총괄 업무가 가장 많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교사의 정규 학교 음악 수업 지도 기간을 묻는 응답에서는 10년 이상이 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도 경력이 없다는 교사는 없었다. 오케스트라 수업 지도 기간은 1년 이하, 1~5년이 각각 6명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이 없다는 교사도 2명이 있었다.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내에서 다루는 연주악기는 일반 오케스트라와 국악 오

케스트라로 나누어 구분하였는데, 먼저 일반 오케스트라에서는 바이올린과 첼로와 같은 현악기의 비율이 가장 높아 대부분의 오케스트라 유형이 현악 오케스트라나 표준 오케스트라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악 오케스트라에서는 소금의 비율이 30%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 아쟁, 해금, 25현 가야금, 거문고, 대금 순으로 악기를 다루고 있었다. 연주 악기에 대한 만족도는 97.0%가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는 악기의 특성에 따른 신체적 불편함, 악기연주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학생들이 현재 다루고 있는 악기의 습득경로는 56.3%가 학교에서 빌려준다고 하였고, 31.9%가 학교에서 무료 제공 된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 준비된 악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소외지역 학생들에게 공교육 내에서 문화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학생오케스트라의 사업의 취지에 적합한 환경이 구축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케스트라 활동 외 개인 실기지도는 65.9%가 받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개인적으로 실기 지도를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실기 지도 장소는 방과후 교실이 7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생오케스트라를 가입하게 된 동기로는 53%가 ‘취미활동을 위해서’ 라고 답하였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 가입하는 학생도 39.2%로 높게 나타났다. 문항의 보기 중 친구의 권유로 가입했다는 빈도수는 초등학교보다 중학교로 갈수록 높게 나타나 중학생들이 초등학교보다 또래 친구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적 효과 조사에서도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교사의 경우, 대부분 학생오케스트라가 진로탐색의 기능, 사교육 감소, 사회성과 협동심 발달,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였다. 학생의 경우 오케스트라가 취미와 적성개발, 음악과목의 이해, 자신감을 쌓는데 도움, 화음 형성에 대한 즐거움, 음악에 대한 애호심이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학업의 스트레스 감소에서는 ‘매우 그렇다’ 가 38.5%로 답하였으나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학생의 비율도 37.8%로 높게 나타나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오케스트라를 통해 스트레스 감소를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원들이 학생오케스트라를 통해 배운 점으로는 음악적 지식과 함께하는 협동심, 무대 경험을 통한 자신감을 배웠다는 의견에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함께하는 협동학습인 오케스트라를 통해 음악적 지식을 배우고, 하나의 목표를 두고 함께 연습하고 연주하는 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배우며 연주회 같은 무대 경험을 통해 자신감도 키우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운영 실태 조사에서 오케스트라 운영 인력 구성 및 인원에 대한 응답 결과, 지휘자는 1개교를 제외하고 모두 있었으며,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대부분 1명으로 2개교를 제외하고 모두 있었으며, 파트별 지도 강사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인원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규모에 맞게 인력이 배치되었다. 하지만 학부모회와 외부자문위원이 있는 학교는 각각 14개교 중 2개교, 5개교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를 통해 학생오케스트라의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인력 구성이 필요하며 특히 학부모회와 운영 전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부자문위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오케스트라의 유형은 학생들이 다루는 악기의 종류에 대한 설문조사와 일치하게 표준 오케스트라와 현악 오케스트라가 가장 많았으며, 악성 우특과 난계 박연의 고장에서는 지역문화의 특성을 살린 국악 관현악단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었다. 학생오케스트라의 단원 수는 20명 이상~30명 이하와 50명 이상이 가장 많았다. 단원 모집 방법은 거의 대부분 신청자는 다 받는다고 하여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는 학교는 없었고, 기타의견으로는 신청자 중 악기 수에 맞춰선착순으로 받는다고 답하였다. 오케스트라 내에서 개인 악기를 선택 시, 대부분 학생의 의견을 고려한다고 답하여 학생들의 악기 선택에 대한 자율권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습 장소 중 합주 연습 장소는 오케스트라 전용 연습실 6개교로 가장 많았

으며, 파트별 연습 장소로는 일반교실이 5개교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생오케스트라 창단지원금으로 오케스트라 전용 연습실을 만든 학교가 6개교이며 그 외 학교는 대강당이나 일반교실, 음악실에서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파트 연습실 또한 별도로 존재하는 곳이 3곳 밖에 없으며 대부분 일반교실에서 연습하고, 빈 교실을 찾아 연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오케스트라를 통해 구비한 시설로는 악기와 보편대 및 의자가 많았으며 단복구매, 다양한 악곡의 악보, 오케스트라 전용 연습실 순이었다. 오케스트라에 더 필요한 기자재는 다양한 악곡의 악보가 가장 많았으며 디지털 매체 설비와 파트별 연습실, 단복구매, 비치용 악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악곡을 평소에 구하기 어렵고, 디지털 매체 설비를 통한 효과적인 학습이 필요하며 파트별 연습 장소의 설립으로 편하게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오케스트라의 일 년 예산은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이하가 가장 많았고, 대부분의 학교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꼈으며, 주된 출처로는 기타의견이 가장 많았다. 기타의견에는 대부분 단일지원이 아닌 여러군데에서 지원받거나 후원을 받는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었으며, 이는 교육부의 3년 지원이 끊긴 학교가 많아 교육부에서 지원해주는 유지비용으로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학생오케스트라를 하면서 담당교사가 받은 연수 프로그램은 없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고, 받았다고 답한 교사들은 주로 지휘법이나 운영 컨설팅에 관한 연수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담당교사의 연수가 필요하며, 오케스트라 활성화를 위해 교사 스스로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합주실태 조사에서 주 당 파트별 연습 횟수와 연습시간은 2회와 5시간이상을 연습한다는 기타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주 당 합주 횟수는 1회가 가장 많았다.

연습시간 대는 방과후가 대부분이었으며, 정규 수업시간 외에 연습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운영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다.

담당교사는 오케스트라 지도 계획을 대부분 1년 단위로 계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1명의 교사만이 학기 단위로 계획한다고 하였다. 지도곡의 종류는 다양한 장르의 곡을 지도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곡 선정 시 교사가 가장 크게 고려하는 점은 학생들의 연주 능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연주회 및 공연의 성격에 따라서 선정한다고 하는 의견도 4명이 있었으며, 편곡의 용이성에 따라 선정한다는 의견도 1명 있었다. 학생오케스트라 연주 악보의 출처는 다양한 출처가 가장 많았으며, 지인에게 의뢰하여 구한 악보도 높은 빈도수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악보를 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담당교사나 지휘자가 직접 편곡이 가능하다면 운영 예산을 많이 아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시행되었던 학생오케스트라의 연주 횟수는 3회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한 연주회 당 곡의 수는 3~4곡 정도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사회적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새 정부의 국정지표인 문화융성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는 학교와 사회로 대상을 구분하여 문화예술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정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술교육의 중요성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대중적인 예술교육의 성공적인 사례인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는 예술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일깨워주었다.

이 연구는 한국형 엘 시스테마의 일환으로 시작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의 학생오케스트라에 대한 것으로 충북 지역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실태, 학생과 교사가 생각하는 교육적 효과,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지역에 맞는 학생오케스트라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조사내용을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조사에서는 학생의 경우 고학년으로 갈수록 오케스트라의 참여가 많아지고 담당교사의 경우 음악교육 외 전공자가 가장 많았다. 담당교사의 경우 학생오케스트라 내 역할이 주로 운영 업무 총괄이 가장 많았으며, 정규 학교 음악 수업 경력에 비해 오케스트라 수업 지도기간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루는 악기는 현악기로 이는 일반 학생오케스트라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오케스트라 유형이 현악오케스트라나 표준오케스트라의 구성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악기를 습득하는 경로는 대부분 학교에서 빌려주거나 무료로 제공된다고 응답하였고, 오케스트라 외 실기 지도를 개인적으로 받는 일부 학생들은 대부분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공교육 내에서 학교를 거점으로 문화소외지역 학생들에게 음악교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학생과 담당교사가 생각하는 학생오케스트라의 교육적 효과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학생의 경우 취미와 적성개발, 음악과목의 이해, 자신감, 화음형성의 즐거움, 음악에 대한 애호심의 측면에서 교사의 경우 진로탐색의 기능, 사교육 감소 기능, 사회성과 협동심 발달, 정서적 안정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 모두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오케스트라를 통해 학생들은 음악적 지식과 함께 협동심을 배우며, 무대 경험을 통한 자신감을 키우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운영실태의 경우, 먼저 오케스트라 운영 인력 구성은 지휘자와 행정실무, 파트별 지도 강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대부분 존재하였으나 학부모회와 외부자문위원이 있는 학교는 극소수였다. 엘 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처럼 학생오케스트라의 지속적인 유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력의 구성이 필요하다. 오케스트라의 유형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악오케스트라와 표준 오케스트라 이외에도 충북지역에는 국악오케스트라가 많이 나타났는데, 대부분 학생오케스트라 사업 전에 창단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학생오케스트라로 선정이 되면서 활성화가 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의 문화도 활성화시켜 지역통합의 사회적 역할까지도 수행하여 학생오케스트라의 사업의 취지를 이해한 가장 근접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오케스트라는 일 년 단위로 지원이 되는데 대부분 학교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껴 부족한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교육부의 지원이 끊긴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후원이 필요하다. 또한 담당교사가 학생오케스트라를 위해 받은 연수프로그램이 없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는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오케스트라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담당교사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넷째, 합주 실태에서는 주 당 파트별 연습 횟수와 시간은 주 2회, 5시간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공통적으로 합주 횟수는 주 1회로 나타났다. 연습시간은 방

과후를 활용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학교의 사정에 맞게 연습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도계획은 1년 전체를 계획하고, 곡의 종류는 한 장르에 국한된 선곡이 아니라 여러 장르를 섞어서 지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곡 선정 시 교사가 가장 크게 고려하는 점은 학생들의 연주 능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악보는 교사의 직접적인 편곡보다는 그 외 다양한 방식으로 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학생오케스트라가 사업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으나 문제점 또한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학생오케스트라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오케스트라 활동을 위한 예산확보이다.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강사의 수당, 악기 수리비 및 유지비, 공연 시 대관비용, 대회 참가 시 이동비용 등 많은 부분에서 크고 작게 지출이 된다.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지자체, 지역 기업 등의 후원이 필요하고, 학부모회를 활성화시켜 개인적으로도 후원을 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단위학교보다는 지역연합으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충북지역의 학생오케스트라 중 문화소외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의 규모나 학생들의 수가 적은 학교가 많다. 이에 많은 교사들이 단원 모집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보의 공유가 활발하지 않아 오케스트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담당교사 혼자서는 해결방안을 찾기 쉽지 않다. 따라서 단원 수가 적은 학교들은 단위학교보다는 지역연합으로 운영하여 다른 학교 학생들과 교사들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간다면 오케스트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오케스트라의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이 필요하다. 학생오케스트라는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사업단을 통해 관리되는 시스템이다. 설문을 통해 많은 교사들이 업무에 부담을 느끼며 파트별로 업무를 부담할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담당교사의 수를 늘려 행정업무 내에서도 강사비 지급,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등 파트별로 업무를 분담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학부모회와 외부자문위원 등 외부의 관심과 도움도 필요하고, 오케스트라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내에서도 동료교사, 학교장의 관심과 오케스트라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오케스트라 강사의 체계적인 지도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의 지도이다. 설문을 통해 바라는 점에서 학생들은 강사선생님의 수업방식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교사들 또한 강사들의 성실성에 대한 감시 및 감독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악기지도 강사들의 체계적인 지도 계획과 성실한 태도가 중요하며, 학생들의 음악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과 함께 성장해나가는 지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오케스트라의 형태이다. 충북지역에는 다른 지역의 학생오케스트라에 비해 국악학생오케스트라의 비율이 높았는데, 충북지역은 박연과 우륵 같은 우수한 음악인의 고향으로써 해당지역에는 그 뜻을 이어 활동하는 지역음악인과 단체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구하기 쉽고, 학생들은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 수월하다. 이들의 활발한 활동은 지역통합에 기여하며 오케스트라의 활성화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따라서 엘 시스템의 유연한 운영방식처럼 학생오케스트라 또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운영방식을 이용하여 활성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서지혜, 이진숙. 『한국형 엘 시스템』 -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일귀가
기, 서울 : 마티, 2014
- 권덕원 외 3명.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 교육과학사, 2005
- 이홍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 세광출판사, 1992
- 조효임, 장기범. 『초등기악교육론』, 서울 : 예일출판사, 2005

<학위논문>

- 구성선.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위한 매뉴얼 개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 김보윤.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 김소형. “사회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오케스트라 지도교사에 관한 질적 사례
- 서울시립교향악단 운영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가천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 김지선. “교과부 지원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김현미. “‘엘 시스템’ 고찰을 통한 사회취약층 청소년 음악교육의 방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 김혜미.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고등학교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실태 분석”, 이
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 남혜선.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주활동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경

기지역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송향금. “학생오케스트라 사업: 운영실태 분석과 발전방향 탐색 - 교육부 1차(2011년)선정 사례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신소영. “강원도 내 교육부 지정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실태 분석 - 3년차 운영학교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신소영. “엘 시스템아 형 오케스트라의 확산분석과 국내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석사학위 논문, 2013.

정수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서울·경기지역 학생 오케스트라의 운영실태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최정민.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초등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실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학회지>

교육과학기술부. “2012 예술인성교육의 비전 및 실천과제 개발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2.

<영상물>

파울 슈마츠니, 마리아 슈토틀마이어, 「기적의 오케스트라 엘 시스템아」 (El sistema 2008), 다큐멘터리, 드라마, 2010

<웹 페이지>

교육부 <http://www.moe.go.kr>

꿈의 오케스트라 <http://www.orchestrakids.or.kr>

서울시립교향악단 <http://www.seoulphil.or.kr>
충청북도 교육청 <http://www.cbe.go.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www.arte.or.kr>

ABSTRACT

A Study on the Operation Condition of Student Orchestra Funded by the Chungbuk Ministry of Education

Ji Sun, Jeon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El Sistema' is a social behavioral organization which was established with hope for adolescents who are exposed to drugs and crime in social disparity to overcome poverty, prevent crime, and to grow and achieve their dream through music education. El Sistema is being operated systematically based on philosophical principles as social changes, ensemble education, high number of education, accessibility, and connectivity, and it is being operated flexibly in accordance with situations of local circumstances. Through this system, adolescents are being protected from poverty and crime and they are contributing to the national development not only through individual growth in music and holistic growth, but through unification of family and local society as well.

Based on the education example of El Sistema that settled in as a

successful mass education, it is being conducted in various countries as an educ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actual state of each country. Related education policy has been enforced in Korea as awareness on the necessity of art education activities that cultivates sociality has been strengthened, and representative ones are 2011 'Student Orchestra'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the present Ministry of Education), 'Dream Orchestra' of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and 'Our Town Art School' sponsored by Seoul-si and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ducational effects of student orchestra which began as an art education projec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o propose solutions for revitalizing in accordance with local conditions by understanding operation conditions of student orchestra in Chungbuk. To this end, this study will investigate educational effects of orchestra and a model of student orchestra, 'El Sistema,' and investigate the current 'Korean El Sistema.' Also, this study will conduct questionnaire on current situation and operation status of student orchestra in Chungbuk on students and teachers to propose solutions for revitalizing in accordance with local conditions after investigating the conducted researches through precedent studies.

The research subject consisted of student orchestras in 16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in Chungbuk among among 400 selected schools from 2011~2013, and conducted survey investigation through questionnaire on students and teachers.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schools created an environment for students to borrow instruments and lent them for free for them to play instrument without burden, and majority of students participated in orchestra as a hobby. Most of students gave positive answer for educational effect that they felt through orchestra, and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they gained musical knowledge, cooperative spirit, and confidence.

Operation condition and condition of ensemble were investigated through questionnaire on teachers, and it was identified that teachers were mostly in charge of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and more than majority of response said they never received training program that government support is considered necessary in the future for effective and systematic operation. It was identified that they thought student orchestra was playing a positive role in educational aspect in terms of career exploration, decreased private education, development of sociality and cooperative spirit, and mental stability.

Overall, student orchestra was operating well according to the intent, but some problems were found. For activation plans after taking opinion from teachers and students through questionnaire, there were securing budget for continuous orchestra activity, orchestra operation by regional association not component school, systematic instruction by orchestra instructor, and management of orchestra that makes the most of regional features.

The program is expected to give hope and dream to students in culturally secluded area through music and to develop into a program

that can make personal growth in music, holistic growth, as well as to make contributions in social integration of family and nation.

<부록1> 학생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주시는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교육부에서 지정·지원하는 충북지역 학생오케스트라의 운영실태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며, 이 연구를 통해 충북지역 학생오케스트라의 더 나은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설문은 무기명으로 이루어지며, 연구 결과 또한 무기명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순수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생 여러분의 답변이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바쁘시더라도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 전 지 선 올림

※기초 응답 조사(9문항)

1. 성별 ① 남 ② 여

2. 현재 재학 중인 학교급과 학년을 적어주세요. ()

3. 학생오케스트라에서 자신이 연주하고 있는 악기를 적어주세요. ()

4. 현재 다루고 있는 악기에 대해 만족합니까?
① 만족한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 4-1. 현재 다루고 있는 악기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번 문항 ②번 응답자만) ()

5. 현재 다루고 있는 악기를 배운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1년 미만 ③ 1년 이상~2년 미만 ④ 2년 이상~3년 미만
⑤ 기타()

6. 현재 다루고 있는 악기 습득 경로
① 학교에서 빌려줌 ② 학교에서 무료 제공 ③ 소장하고 있던 악기
④ 활동을 시작하면서 구입한 악기 ⑤ 기타 ()

7. 현재 오케스트라 외의 개인 실기 지도를 받고 있습니까?
① 받고 있다 ② 받고 있지 않다

- 7-1. 오케스트라 활동 외의 음악 실기 지도를 받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① 학원 ② 방과 후 교실 ③ 지역아동센터 ④ 개인레슨 ⑤ 기타()

8. 학생오케스트라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선생님의 권유 ② 부모님의 권유 ③ 친구의 권유 ④ 취미활동을 위해서
⑤ 기타()

9. 오케스트라 연습시간의 적정도
① 적당하다 ② 부족하다 ③ 충분하다

※교육적 효과 조사

(해당되는 칸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0. 자신의 취미와 적성개발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1. 음악과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12. 연주활동을 통하여 자신감을 쌓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13.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화음을 만들어 연주하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합니까?					
14.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되었습니까?					
15. 학생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음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생겼습니까?					

16. 학생오케스트라를 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음악적 지식 ② 무대경험을 통한 자신감 ③ 함께 하는 협동심 ④ 책임감
⑤ 기타()

<어려운 점 및 바라는 점>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과 어렵다고 느낀 점

◆학생 오케스트라에 바라는 점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2> 교사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주시는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교육부에서 지정·지원하는 충북지역 학생오케스트라의 운영
실태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며, 이 연구를 통해 충북지역 학생오케스트라의
더 나은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설문은 무기명으로 이루어지며, 연구 결과 또한 무기명으로 사용될 예정
입니다.

또한 순수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들의 답변이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바쁘시더라도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 전 지 선 올림

※ 기초조사

1. 선생님의 전공
()

2. 오케스트라 담당하는 교사
① 본교 선생님 ② 외부강사 ③ 본교선생님+외부강사 ④ 기타()

3. 오케스트라 내에서 선생님의 역할
()

4. 정규 학교 음악 수업 지도기간
① 없다 ② 1년 이하 ③ 1년~5년 ④ 6년~10년 ⑤ 10년 이상

5. 오케스트라 수업지도 기간
① 없다 ② 1년 이하 ③ 1년~5년 ④ 6년~10년 ⑤ 10년 이상

6. 학생오케스트라의 창단연도 ()

※ 교육적 효과 (해당되는 칸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학생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학생의 취미와 적성개발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진로탐색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사교육 감소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4. 악기 연주 실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사회성과 협동심이 발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 정서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 각하십니까?					

※운영실태 조사

1.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에 필요한 인력구성과 인원

지휘자	명
행정실무	명
파트별 실기지도 강사	명
학부모회	명
외부 자문위원	명
기타()	명

2. 학생 오케스트라의 유형 (해당되는 칸에 동그라미)

표준 오케스트라	
현악 오케스트라	
관악 오케스트라	
타악 앙상블	
국악 관현악단	
국악 현악 합주	
국악 타악 합주	

3. 학생 오케스트라의 총 인원 수

- ① 10~20명 ② 20~30명 ③ 30~40명 ④ 40~50명 ⑤ 50명이상

4. 학생 오케스트라 활동하는 학년 구성

(해당하는 학교급별 학년을 기입) 1순위() 2순위() 3순위()

초등학교 ① 1~2학년 ② 3~4학년 ③ 5~6학년

중학교 ④ 1학년 ⑤ 2학년 ⑥ 3학년

5. 학생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방법

① 신청자는 다 받는다 ② 오디션을 통해 선발 ③ 기타()

5-1. 오디션을 통해 단원을 선발할 경우,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

① 태도 ② 음악적 잠재적 자질 ③ 연주실력 ④ 아동의 희망 ⑤ 교사 추천
⑥ 기타()

6. 학생 오케스트라에서 개인 악기를 선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과 만족도가
고려되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7. 학생 오케스트라의 합주 연습장소(중복 선택 가능)

① 음악실 ② 일반교실 ③ 대강당 ④ 오케스트라 연습실 ⑤ 기타()

7-1. 학생 오케스트라의 파트별 연습장소(중복 선택 가능)

① 음악실 ② 일반교실 ③ 대강당 ④ 오케스트라 연습실 ⑤ 파트별 연습실
⑥ 기타()

8.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을 통해 구비한 시설 (중복 선택 가능)

① 보면대 및 의자 ② 악기 ③ 디지털 매체 설비 ④ 다양한 악곡의 악보
⑤ 오케스트라 전용 연습실 ⑥ 단복구매 ⑦ 기타()

8-1. 오케스트라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자재(중복 선택 가능)

① 보면대 및 의자 ② 비치용 악기 ③ 디지털 매체 설비 ④ 다양한 악곡의 악보
⑤ 파트별 연습실 ⑥ 단복구매 ⑦ 기타()

9. 오케스트라의 일 년 예산

① 100~500만원 ② 500~1000만원 ③ 1000~1500만원 ④ 1500~2000만원
⑤ 2000~2500만원

9-1. 지원 예산 충분 여부

- ① 충분하다 ② 적당하다 ③ 부족하다

10. 오케스트라 예산의 주된 출처

- ① 교육부 지원 ② 교육지원청 지원 ③ 특별활동비(자체 수입 예산)
④ 후원 (구체적으로 기입:) ⑤ 기타()

11.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을 통해 받은 교사 연수 프로그램

- ① 없다 ② 지휘법 ③ 편곡법 ④ 운영 컨설팅 ⑤ 기타()

※ 합주실태 조사

1. 학생 오케스트라의 주 당 파트별 연습 횟수와 연습시간

(해당하는 연습 횟수에 체크해주시고, 해당하는 칸에 시간을 적어주세요.)

연습 횟수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기타()
연습시간					

2. 학생 오케스트라 주 당 합주 횟수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기타()

3. 학생 오케스트라 연습 시간 대

- ① 수업시작 전 아침에 ② 방과 후 ③ 점심시간 ④ 토요일 ⑤ 기타()

4. 오케스트라 지도계획

- ① 1년 전체를 계획 ② 학기 단위로 계획 ③ 한 달 단위로 계획 ④ 1주일 단위로 계획 ⑤ 기타()

5. 학생오케스트라 지도곡의 종류

- ① 교향곡 ② 서곡 또는 행진곡 ③ 성악곡 ④ 뮤지컬 또는 OST ⑤ 국악
⑥ 기타()

6. 곡 선정시 가장 크게 고려하는 점

- ① 학생들의 흥미 ② 학생들의 연주 능력 ③ 연주회 및 공연의 성격
④ 악곡의 교육적 내용 ⑤ 지휘자의 개인적 취향 ⑥ 편곡의 용이성

7. 오케스트라 연주 악보의 출처

- ① 시중에 출판된 악보 ② 지인에게 의뢰하여 구한 악보 ③ 교과서
④ 직접 편곡한 악보 ⑤ 외부 편곡 의뢰 ⑥ 기타()

8. 지난 한 해 시행되었던 학생 오케스트라의 연주 횟수와 한 연주회 당 연주되는 곡의 수 (해당되는 연주 횟수를 선택하시고, 동일 밑 칸에 곡의 수를 적어주세요.)

연주 횟수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이상	⑤기타()
연주되는 곡의 수					

※문제점 및 개선점

◆ 학생 오케스트라를 운영· 지도할 시, 어려운 점이나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점, 발전 방안에 대한 조언, 정부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자생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방향 등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적어주시요.

<p>◆어려운 점</p> <p>◆개선해 나가야 할 점</p> <p>◆자생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p>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3> 2013년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총 400개교) 현황

시도	2013년 선정(100교)	2012년(하) 선정(150교)	2012년(상) 선정(85교)	2011년 선정(65교)
서울 (34)	강남 서울수서초, 서부 서울용강초, 남부 서울 오류남초, 남부 서울금천초, 북부 서울신상계초, 강남 휘문중, 동부 휘경중, 서부 흥은중, 서울 중화고	강남 대진초, 강동 배명중, 강동 천동초, 강서 양원초, 남부 영신초, 동작 남부초, 북부 영광중, 서부 숭실중, 서부 신도고, 성동 신양중, 성북 한빛맹학교, 중부 대신고, 중부 덕성여중	강서 등명초, 남부 독산초, 성동 창안초, 강동 성내중, 동부 면목중, 동작 동작고	북부 오봉초, 북부 중현초, 서부 한서초, 성북 송인초, 서부 덕산중, 성북 번동중
부산 (29)	남부 동향초, 동래 금사초, 북부 천기초, 해운대 송운초, 동래 부곡여중, 북부 기림중, 부산 부산전자공고, 부산 경남공고	남부 주례초, 동래 동명초, 동래 미남초, 부산 동의공고, 북부 신금초, 북부 경일중, 서부 동향중, 서부 사동중, 해운대 배산초, 해운대 한비디중	남부 수정초, 동래 교동중, 동부 남부 부산동여중, 북부 녹산중, 서부 심중, 부산 부산공고	북부 녹명초, 북부 엄궁초, 서부 상리초, 서부 중리초, 서부 두송중
대구 (24)	달성 대구천내초, 서부 대구경진초, 서부 대구학정초, 남부 신당중, 서부 대평중, 남부 성곡중	남부 경상중, 남부 대건중, 남부 영신초, 남부 학신중, 달성 죽곡초, 대구 원화여고, 동부 동문초, 동부 피동초, 서부 문성초, 서부 평리초	남부 신당초, 달성 유기초, 남부 본리중, 서부 복현중, 대구 달성정보고	서부 경운초, 서부 북비산초, 동부 대구자연과학고
인천 (26)	동부 인천송천초, 동부 인천신송초, 서부 인천원당초, 서부 인천부현초, 동부 민수여중, 북부 부원여중, 북부 부일중	강화 갑룡초, 강화 강화여중, 남부 송림초, 남부 인주중, 동부 석정초, 동부 연수중, 서부 가좌초, 서부 서곶중, 인천 신현고	남부 송현초, 서부 심곡초, 강화 강화중, 남부 영종중, 인천 한국문화콘텐츠고, 인천 인천해광학교	동부 논현초, 북부 산곡초, 북부 상정초, 북부 부원중
광주 (16)	동부 연제초, 서부 송화초, 서부 전남중	광주 제일고, 광주 중앙여고, 동부 경신중, 동부 신수초, 동부 중앙중, 서부 송정중	동부 광주중앙초, 서부 월봉초, 광주 명진고	서부 봉주초, 서부 수원중, 서부 수피아여중, 서부 송의중
대전 (14)	동부 동도초, 대전 충남여고	대전 대신고, 대전 유성생명과학고, 동부 지양초, 동부 대성여중, 동부 호수둔여중, 서부 대덕초	동부 산흥초, 동부 선화초, 동부 대문중, 동부 대청중	동부 대전신탐중앙중, 동부 한빛여중
울산 (12)	울산 울산생활과학고, 울산 울산여상	강남 서생중, 강남 중남초, 강북 다운중, 강북 약수초, 강북 천곡중	강북 강동초, 강북 북산초, 강북 이화중	강남 삼호초, 강남 태화중
세종 (2)	세종 소정초	조치원 대동초 (*126.13, 충남교육청 추천)		
경기 (38)	부천 중원초, 안산 반월초, 평택 내기초, 화성장안중, 장안초, 성남 풍생중, 용인 원심중, 용인 용신중, 경기 한국문화영상고, 경기 서해고, 경기 안양공고, 경기 홀트학교	가평 미장초, 광명 하인북초, 광주하남 광주중, 고양 일산고, 구리남양주 호평고, 성남 서현초, 수원 고색고, 시흥 신일초, 안산 경수중, 안성 비룡중, 안양피천관양중, 양평 강상초, 여주 창명여중, 연천 전곡중, 의정부 부용고	용인 백암초, 파주 김신초, 포천 포천초, 포천 포안도중, 양평 용문중, 의정부 효자고, 천 부원고	화성오산 구봉초, 화성오산 배양초, 평택 장당중, 화성오산 운암중, 평택 현화고

강원 (27)	속초양양 영랑초 원주 구곡초 원주 민중초, 태백 황지중앙초 철원 신철원중, 삼척 도계중, 강원 문성고	강릉 옥계초 강원 애니고 동해 북호초 횡성 성북초 속초 양양 김현중, 원주 삼육고 원주 치악중, 춘천 신천초, 태백 삼성초, 홍천 홍천중	속초양양 대포초, 원주 문둔초, 화천 사내초 춘천 춘성중, 평창 진부중, 춘천 봉의고, 춘천 강원명진학교	철원 오덕초, 평창 계촌초, 평창 호명초
충북 (25)	영동 양산초 청주 강서초 충북 탄금초 청주 북대중, 충북 충원고	괴산증평 괴산오성중, 단양 단양중, 영동 영동중, 영동 영동고, 옥천 군남초 음성 쌍봉초 음성 용천초, 제천 양미초 진천 초평초, 충주 교현초	단양 심진초 진천 한영동 황간중	괴산증평 문광초 괴산증평 목도초 괴산증평 소수초 모은 모은삼산초 괴산증평 괴산중, 모은 속리산중
충남 (26)	금산 용문초 아산 신창초 예산 시랑초 아산 금봉중, 예산 예산중, 충남 대안고, 충남 여해학교	논산계룡 계룡고, 논산계룡 논산여고, 보령 정심학교, 서산 서산여중, 천안 중앙초, 홍성 홍성여중, 홍성 홍주초	공주 의당초 태안 원북초, 홍성 덕명초, 부여 은신중, 서천 서천여중, 논산계룡 강경고	당진 당산초, 서산 기사초, 당진 당진중, 당진 호서중, 서산 팔봉중, 서산 대산고
전북 (22)	전북 무풍중고	김제 금성여중 순창 중앙초 원주 봉동초 임실 성수중, 장수 번암초, 전주 합일여고, 전주 이중중, 전주 우림중	남원 남원중앙초 부안 부안초, 진안 진안초, 군산 회현중, 전주 전주남중	원주 구이초 ^(※) , 원주 청명초 ^(※) , 고창 고창여중, 원주 구이중, 정읍 정읍초, 고창 강호항공고, 정읍 정주고 [*] , 정읍 호남고 [*]
전남 (31)	고흥 고흥동초 광양 광양서초, 나주 다시초, 담양 창평초, 화순 도곡초, 영암 영암중, 장흥 장흥중, 전남 진도국악고, 전남 다리고	곡성 곡성중, 광양 진상초 담양 창평중, 목포 목포여중, 무안 정계초, 보성 보교중앙초, 여수 여수여중, 여수 여수정보과학고, 영광 흥농초, 장흥 대덕초, 전남 장성실업고, 해남 해남동초	강진 강진중앙초 순천 성동초, 신안 인좌초, 완도 완도중앙초, 목포 흥일중, 보성 예당중, 순천 순천여중, 장성 장성여중, 전남 삼하고 [*]	여수 관기초
경북 (31)	경주 흥무초 군위 군위초, 안동 대구교대인동부설초, 포항 유강초, 경산 하양여중, 김천 김천중, 포항 대도중, 영주 영주여중, 경북 경주여자정보고, 경북 포항동성고	경산 경산서부초 경주 금장초, 김천 중앙고 문경 모전초, 상주 함창중, 안동 월곡초, 예천 대창고, 울진 후포중, 의성 의성중, 포항 영일중, 포항 창포초, 포항 영도학교	구미 형일초, 청도 청도초, 경주 경주여중, 칠곡 순실여중, 영천 성남여고, 포항여자전자고	구미 영천동부초, 구미 고령중, 구미 구미전자공고
경남 (31)	거제 수월중, 남해 해양초, 신성 신안초, 진주 진주초, 함양 함양중, 합천 합천초, 양산 서창중, 창원 진해여중, 경남 거제고	거제 제산초, 경남 창원대산고, 김해 김해제일고, 밀양 밀양중, 시천 삼천포중앙여중, 진주 진주외국어고, 장녕 명덕초, 창원 제황초, 통영 등원중, 함안 칠원중, 합천 합천여중	고성 회화초, 김해 진영대창초, 양산 덕계초 남해 설천중, 창원 광려중, 거창 가조이천고	의령 가례초, 의령 의령초, 의령 칠곡초, 의령 화정초, 하동 진교중
제주 (12)	제주 인화초, 제주 조천중, 제주 대정여고	서귀포 서귀서초 서귀포 서귀중앙여중, 서귀포 서귀포여고, 제주 이도초, 제주 탐타중	서귀포 대정초, 서귀포 사계초	제주 외도초, 제주 재릉초
계 (400)	총 400교 (초 191, 중 136, 고 66, 특수 7, 국악 58)			

(※)전북 구이초, 청명초의 경우 구이중과 연계 운영중